

INVITATION
TO THE
ARTS

OCTOBER

예술계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6 10 vol.298

BOF

BUSAN ONE ASIA FESTIVAL

Cover Story

‘부산에서 하나되다’ 2016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세계의 공연장

LA 뮤직센터 그리고 신, 구의 조화가 이룬 눈부신 성과

축제속으로 고고

제14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2016 8th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PROGRAM

리체이 | <BWPO 아시아의 창> 서곡
• Lee Che-Yi | BWPO 'Windows of Asia' Overture

피에르네 | 하프 협주곡 작품39
• G. Pierné | Concertino for Harp & Orchestra Op.39

말러 | 교향곡 제1번 D장조 <거인>
• G. Mahler | Symphony No.1, in D Major 'Titan'

예술감독 **오충근**

Artistic Director Choong-Keun Oh

하프 객 **정**

Harp Jeong Gwak

2016. 10. 31

| Mon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KNN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추진위원회

| 후 원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교육청



넥센실석문화재단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은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BWPO Members | 악장 웨인 린 양경아 린후이춘 제1바이올린 김나영 김유리 김효빈 고아라 강지훈 객예지 박진 송지현
손은혜 심신지 조은비 정다희 임지영 이혜민 이영주 최서연 제2바이올린 정지혜 | 수석 | 권아름 문현정 박원서 송혜민
이민지 임나리 유선물 양예림 이희진 조영숙 정운봉 정희수 한유진 홍지수 비올라 대일김 | 수석 | 김가민 김영복
김민경 김상철 박예은 배단비 손주연 유리아 유정주 이현원 이한지 정화경 하정호 첼로 우양희루 | 수석 | 이예성 | 수석 |



세계로 향하는
부산문화의 아이콘!

예술감독 오충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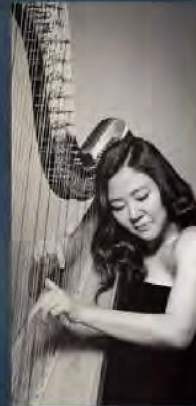
Artistic Director Choong-Keun Oh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대학원 졸업
- 미국 보스턴 콘서바토리 졸업
- 베를린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우수 교향악단 지휘
-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 동경예술극장, 프라하 스테타나 홀 등 세계적 연주홀에서 지휘
- 2015년 한국·체코 수교 25주년 기념 '평화콘서트' - Sony 레이블 음반출판
- 2017/18년 독일 베를린필하모닉을 객원지휘 예정
- 현재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KNN방송교향악단 예술감독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연주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는 아시아 주요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과 문화의 지평확대로 애항심 고취와 시민정서를 함양하고자 설립된 오케스트라이다.

대화합의 상생으로, 세계음악 중심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부산 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제,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과 국내 음악인들의 교류를 통해 우수한 음악적 역량을 국내외 무대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협연 객정 Jung Kwak | 하프

- 미국 인디애나 음대 졸업 (최우수 연주자상 수상)
- 미국 이스턴 음대 석사 졸업 (최우수 연주자상 수상)
- 주빈 메타, 이스라엘 필과 유럽, 이스라엘 순회 공연
-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제네바 챔버 오케스트라, 프라하 방송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코리아 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수많은 단체들과 협연
- 현재 Korean Harp Festival 예술감독
(사)하피데이양상블 이사장 및 음악감독
중앙대학교 외래교수

2016 BWPO 악장



제1악장 웨인 린 Wayne Lin | 서울

- 미국 출신, 미국 줄리어드 음악원, 예일대 음대 석사 졸업
- 줄리어드 예일필하모니아, 뉴헤이븐심포니 악장 역임
-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악장



악장 양경아 Yang Kyung-Ah | 부산

- 한국 부산 출신, 미국 맨하탄 음대 및 대학원 졸업 (학사, 석사)
-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졸업 (박사학위 취득)
-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 KNN방송교향악단 악장



악장 린 후이춘 Lin Hui-Chun | 타이베이

- 타이완 출신, 타이완 국립예술학교 졸업
- 타이베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 역임
- 현재 타이완 국립예술대학교 교수(음악학장)

| 협찬 | KNN KWARD 조광해인도 BNK 부산은행 HAEUNDAE GRAND HOTEL

| 문의 | KNN 051-850-9566, 9568 www.knn.co.kr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www.bwpo.co.kr

* 시민을 위한 초대권은 KNN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진희 김경연 김연경 김지연 김하늘 박은리나 변은석 서성은 정혜주 조선일 베이스 김진철 | 수석 | 김현정 | 부수석 | 김선경 박성진 박지선 배인애 인지형 이현정 이효영 황예원
플루트 나재원 | 수석 | 채성경 이주형 피콜로 변예슬 오보에 이미성 | 수석 | 고관수 박소은 박정준 클라리넷 요코키와 세이지 | 수석 | 김대현 이원기 이호주 바순 최영진 | 수석 | 신연경 정보영
호른 최경일 | 수석 | 박지용 | 수석 | 이민정 김영민 이수환 조성현 박남미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 수석 | 박승훈 전상윤 정현우 트롬본 이정생 | 수석 | 김성재 최민재 베이스트롬본 김유석 | 수석 |
튜바 하재영 | 수석 | 팀파니 박광서 | 수석 | 배재익 타악기 이유희 | 부수석 | 김세연 윤미희 하프 리첸이 | 수석 | 기욱림장 문자는 공연지원 김성진 어경진 황선지 악보 임종필 장연지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BUSAN WORLD 2016
PHILHARMONIC ORCHESTRA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2016. 11. 1 | 화 | 7:30pm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CHAMBER MUSIC CONCERT
〈실내악으로의 초대〉

| Program |
L. v. Beethoven
- String Quartet No.4 Op.18
M. Ravel
- Le Tombeau de Couperin
Che-Yi Lee
- Searching 外수곡

- 예술감독 오홍근 (BWPO 예술감독)
바이올린 웨인 린 (서울시향 부악장)
양경아 (KNN필 악장)
린 후이춘 (대만 · 타이난 국립예술대학교 학생)
비올라 매일 김 (서울시향)
첼로 박예은 (충남교향악단)
플루트 이예성 (부산심포니 수석)
오보에 우양 휘루 (대만 · 타이베이교향악단 수석)
클라리넷 김진철 (서울시향)
바순 나채원 (포럼필 수석)
호른 이미성 (서울시향 수석)
하프 최영진 (일본 · 도쿄필 수석)
리처이 (대만 · 제우스홀 음악감독)
오코카와 세이지 (일본 · 전 NHK심포니 수석)
최경일 (부산시향 수석)
제우스홀 음악감독

주최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추진위원회 | 주관 | PLAN GEEKS | 후원 | KNN
특별후원 | BNK 부산은행 | JOTUN | MACDONALD GRAND HOTEL | 세명아카데미 앙양병원 | THE LITER
문의 | PLAN GEEKS 070-8255-5588 |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 입장료 | 1층 3만원 / 2층 2만원 / 3층 1만원

Mendelssohn

PROGRAM

'Fragment' for Orchestra
Dvorak Cello Concerto in B minor, Op.104
Mendelssohn Symphonies No.5 in D major, Op.107

2016. 10. 20. THU pm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Cello 김선영



예술감독 김원명



지휘 윤상운



작곡 전옥용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 주관 | 한국예술회관연합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부산원음방송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인제대학교
| 관람연령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입장료 | 1만원 | 문의 | 051-220-5812 |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park.com
| 무대감독 | 이순재 | 조병 | 박병주 | 음향감독 | 신경범

• 을숙도명품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 본 공연은 2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Penderecki with Sinfonia WROKIESTR Warsowia

펜데레츠키와 시포니아 바르소비아

지휘
크쉬슈토프 펜데레츠키

2016.10.28 (Fri)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6.10.29 (Sat) 2:0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6.10.30 (Sun) 5:0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마림바 \ 한문경

펜데레츠키
샤콘느

류재준
마림바 협주곡 (한문경 협연)

드보르작
교향곡 제7번, 라단조, Op.70

피아노 \ 안 리시에츠키

펜데레츠키
현을 위한 시포니에타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마단조, Op.11 (안 리치에츠키 협연)

베토벤
교향곡 제7번, 가장조, Op.92

서울 예술의전당
R석 15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13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C석 3만원

문의 1544 5142

주최 OPUS

후원 

OPUS
1544-5142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580-1300

인터파크 티켓
www.ticketpark.com
1544-1555

AUCTION 티켓
ticket.auction.co.kr
1566-1369

YES24.COM 공연
ticket.yes24.com
1544-6399

예매

CONTENTS

CULTURAL STORY



- 08 커버스토리
'부산에서 하나되다' 2016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 10 10월 공연 캘린더
- 12 세계의 공연장
LA 뮤직센터 그리고 신, 구의 조화가 이룬 눈부신 성과
- 16 축제속으로 고고
제14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 18 그곳에 가면
아동·청소년전문극장 '안테르센 극장'
- 20 테마가 있는 여행
포도향 가득한 자연 속에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졌던 영천여행

BOARDS INSIDE



- 26 프리뷰
- 36 리뷰
- 38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56 새로 나온 음반
- 57 새로 나온 책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6년 10월호 통권 298호

발행처 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편집인 손금숙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6년 9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에서 하나되다

2016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부산과 한류(韓流)의ダイナミック한 이미지를 세계로 전파해나갈 아시아 대표 문화콘텐츠 '2016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10월 1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부산이 갖고 있는 문화, 관광 인프라와 한류 콘텐츠, 아시아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개념의 한류축제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은 아시아와 세계의 젊은이들이 만나 K팝,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장르의 한류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한류축제이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에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의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아시아 각국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하는 아시아송페스티벌, 세계적 규모의 격년제 통합미술제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음식박람회, 부산불꽃축제 등 다채로운 페스티벌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벌써부터 아시아 각국 한류팬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2016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의 포문은 한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K-POP으로 연다. 10월 1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공연 'Wonderland'는 한류를 테마로 한 K-POP

무대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한류 문호와 한국 대중가요의 변천사를 재조명한다. 월드가수 싸이를 비롯해 젝스키스, 소녀시대, 싸인블루, 인피니트, 블랙비, 방탄소년단, B1A4, 에이핑크, 걸스데이, B.A.P, 티아라, 아이오아이, 린 등 한류를 이끌고 있는 가수들이 역대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친다. K-POP 무대는 뒷날인 2일부터 4일까지 벅스코에서 그 화려한 무대를 이어간다. 3일에 걸쳐 3가지 컨셉으로 펼쳐지는 'K-POP 콘서트'는 세븐과 김규중, 유키스, 황치열과 거미, 린, 티아라와 다이가가 무대에 오른다. 음악방송 최초 한국과 중국이 공동 제작하고 동시 생방송 되는 글로벌 음악쇼 '더쇼' 부산특집무대는 10월 18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며 VIXX, 여자친구, 아이오아이, 달샤벳, GOT7 등이 참여한다. 10월 23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공연 '원아시아드림콘서트'에서는 샤이니, 엑소, AOA, 방탄소년단, TWICE, 여자친구 등 한류를 이끌고 있는 아이돌 스타들이 출연해 축제 마지막의 아쉬움을 달랜다. 또,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한류스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한류스타 팬미팅'이 10월 8일과 9일 이틀간 벅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마련된다.

아시아 지역의 클래식 애호가들을 위한 클래식 성찬 또한 준비되어 있다. 10월 12일과 14일 부산문화회관에서는 한·중·일 출신의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앙상블이 어우러지는 '클래식饗宴'이 펼쳐진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루



이스 오비스포 모자이크 페스티벌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스킷 유가 지휘하고 2009년 세계적 명성의 하노버국제콩쿠르에서 16세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해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바이올리니스트 후미야키 미우라, 현재 텍사스주립대학교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비온 창, 2011년 프랑스 에피날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김다솔, 경성대학교 교수로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영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풍성한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또 10월 15일과 16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중국은천예술극원이 선보이는 대형 창작무용극 '월상하란(月上賀蘭)'이 무대에 오른다. 중국 내에서도 독특한 풍습을 지닌, 중국 내 소수민족 중 하나인 회족(回族)의 오랜 역사와 민족문화를 담은 작품으로,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부산을 찾은 중국의 한류팬들에게도 중국문화의 자부심을 타국에서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뮤지컬 창작극단 끼리프로젝트가 제작한 메이드 인 부산 공연 '몽키댄스'도 축제기간인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범일동 KB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올해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BIPAF) 경연부문인 '고 월드 페스티벌' 대상 수상작인 '몽키댄스'는 인간과 유사한 원숭이를 찾기 위해 아프리카를 찾은 한 과학자가 원숭이 무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해 인간과 동물은 결국 같은 생명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으로, 마살아츠와 아카펠라, 비트박스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밖에 눈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라이브 드로잉과 첨단 미디어 아트가 결합한 신개념 아트 퍼포먼스 '더 페인터즈 히어로'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문화홀에서 개최된다. '영웅'이라는 주제를 그림의 소재로 삼아 마이클 잭슨, 이소룡, 슈퍼맨 등 세계적인 영웅 캐릭터를 각기 다른 10가지 미술 기법을 통해 보는 즐거움을 주는 '더 페인터즈 히어로'는 지난 2010년 무대에 올려진 후 지금까지 일본,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재미와 감동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찬 공연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부산의 맛과 멋을 한류 콘텐츠와 함께 경험하는 다채로운 전시도 만날 수 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50여 맛집 레스토랑과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차별화된 음식축제 'Taste Busan', 홀로그램, VR, 3D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해 한류의 대표스타와 떠오르는 스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고 K-뷰티와 연계한 한류스타의 화장법, 최신 뷰티 트렌드를 체험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원아시아 한류스타 & 뷰티전'은 각각 10월 3일과 9일까지 벅스코에서 개최되면서 보는 재미, 입이 즐거운 부산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한류 인기프로그램 '런닝맨' 부산체험, 대형기획사가 참여하는 청소년 대상 오디션 '원아시아 뮤직마켓', 부산 시내 주요 지점에 설치한 플랫폼에서 버스킹 공연 및 체험활동을 펼치는 '원아시아 플랫폼'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주요일정

- **원아시아 부산 테이스트**
9월 30일(금)~10월 3일(월) 벅스코
- **원아시아 한류스타 & 뷰티**
9월 30일(금)~10월 9일(일) 벅스코
- **개막공연 'Wonderland'**
10월 1일(토) 아시아드 주경기장
- **원아시아 플랫폼**
10월 1일(토)~23일(일) 플랫폼(시내 4곳 설치)
- **원아시아 뮤직마켓**
10월 2일(일)~4일(화) 벅스코
- **원아시아 K-POP 콘서트**
10월 2일(일)~4일(화) 벅스코
- **한류스타 팬미팅**
10월 8일(토), 9일(일) 벅스코 오디토리움
- **클래식 饗宴**
10월 12일(수), 14일(금) 부산문화회관
- **Made In Busan 공연 '몽키 댄스'**
10월 13일(목)~16일(일) KB아트홀
- **중국은천예술극원 대형 창작무용극 '월상하란'**
10월 15일(토)~16일(일) 부산문화회관
- **원아시아 문화 컨퍼런스**
10월 20일(목) 국제여객터미널
- **더쇼**
10월 18일(화) 사직실내체육관
- **아트 퍼포먼스 '더 페인터즈 히어로'**
10월 18일(화)~23일(일) 신세계문화홀
- **폐막공연 '원아시아 드림콘서트'**
10월 23일(일) 아시아드 주경기장

일시 10월 1일(토)~23일(일)

장소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벅스코 등 부산시 일원

문의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www.bof.or.kr)

부산관광공사(780-2111)

10

2016 OCTOBER

SUN

MON

TUE

전시실

동아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작품전
- 대전시실
9월 28일(수)-10월 4일(화)
문의 : 최영진(010-6684-3450)

제12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 대·중전시실
10월 7일(금)-10월 9일(일)
문의 : 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부산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졸업작품전
- 대전시실
10월 11일(화)-10월 14일(금)
문의 : 허재원(010-7566-6707)

남구문화예술합동전시회 - 대전시실
10월 16일(일)-10월 19일(수)
문의 : 부산남구문화원(624-1333)

제5회 한·중·일 국제아트페어
- 대전시실
10월 22일(토)-10월 27일(목)
문의 : 최학보(010-6258-0047)

제34회 대한민국 미술대상전 작품 접수
및 심사 - 대전시실
10월 30일(일)
문의 : 정태정(010-5488-3375)

2

중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다니엘 호프 & 박중화, 이경선, A, 스프론크' 17:00
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42, 3100)

스 부산연극협회 부산연극페스티벌
'오이디푸스왕' 16:00
부산연극협회(645-3759)

3

대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
가을밤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사랑나눔음악회
19:30 균일 2만원
UKO(010-3863-3087)

4

중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무지카비바
'바로크&Today' 19:30
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

9

10

11

중 바리톤 최성규 독창회 '조두남, 김성태,
김동진, 이흥렬 가곡의 밤' 19:30
균일 2만원/우리아트(920-9545)

16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부산원아시아
아페스티벌 개최기념 '월상하란(月上賀蘭)
17:00 1만원·5천원
부산문화회관(607-6042, 3100)

중 EBS 댕댕댕유치원 '뚜앙-칭찬배지를 찾
아라' 11:00, 14:00, 16:00
4만원·3만원/㈜플랜씨앤씨(02-6265-6334)

스 부산남구생활문화예술제 10:00
무료/회장 문주희(010-7347-9549)

17

중 제19회 오륙도 음악회 19:30
초대/강학윤(010-9287-6350)

18

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축하공연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05, 3143)

중 A.O.B 앙상블 창단연주회 19:00
1만원·5천원/A.O.B 앙상블(010-8912-8237)

23

중 클라리네티스트 정준화가 들려주는 두번
째 이야기 19:30
균일 1만원/정준화(010-9252-6504)

24

대 2016 부산예술제 '제54회 부산무용예술
제' 19:30 부산무용협회(632-5116)
중 부산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한·중·일 교류
음악회 19:30 균일 1만원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010-3376-2246)
스 풍물굿패 소리결 2016 기획공연 19:30
초대/풍물굿패 소리결(010-8518-5569)

25

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독도 세 번째 이
야기&제30회 부산청소년합창제' 19:30
초대/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08, 3146)
중 합창으로 듣는 오페라콘서트 19:30
5만원·3만원·1만원/K.S.H ART(010-8610-0859)
스 강민정 해금 독주회 '찰(擦), 나' 19:30
초대/강민정(010-8991-4148)

30

중 2016 신라대학교 디자인·예술대학 음악
학과 합창 정기연주회 19:30
무료/신라대학교 음악학과(999-5265)

31

대 2016 제8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19:30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850-9566, 9568)
중 고신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오병이어 음악회 19:00 고신대학교(990-2222)
스 최오성 타악 독주회 19:30 초대/최오성(010-5102-9059)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
니다.

WED	THU	FRI	SAT
			1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다니엘 호프&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 19:3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 소 부산연극협회 부산연극페스티벌 '오이디푸스왕' 16:00 부산연극협회(645-3759)
5 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29회 부산합창제' 19:30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08, 3142) 소 홍영혜 아쟁 독주회 19:30 초대/홍영혜(010-2607-0904)	6 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29회 부산합창제' 19:30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08, 3142)	7 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29회 부산합창제' 19:30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08, 3142) 중 제12회 부산국제제어올림문화제 15:00 무료/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소 제35회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졸업발표회 18:30 무료/신라대학교 무용학과(999-5301)	8 대 제9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10:00 무료/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513-4306) 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29회 부산합창제' 17:00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08, 3142) 소 토요상설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
12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부산원아시아 페스티벌 개최기념 '클래식 饗宴' 19:30 R석 2만원·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 중 음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Unique Moment' 19:30 2만원·1만원/박광식(010-5606-5207)	13 중 베이스 바리톤 양재원 독창회 19:30 균일 2만원/우리아트(920-9545) 소 피아노로 보고 듣는 오페라 여행 19:30 초대/우리아트(920-9545)	14 중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부산원아시아 페스티벌 개최기념 '클래식 饗宴' 19:30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	15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부산원아시아 페스티벌 개최기념 '월상하란(月上賀蘭)' 17:00 1만원·5천원 부산문화회관(607-6042, 3100) 중 EBS 댕동댕유치원 '뽕앙-칭찬배지를 찾아라' 14:00, 16:00 4만원·3만원/(주)플랜씨앤씨(02-6265-6334) 소 토요상설무대 '온누리오페라단'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
19 대 부산·울산·경남지역 이전공공기관 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 13:00 무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044-415-3747) 중 소프라노 권미현 독창회 19:30 균일 2만원/윤예술기획(010-9025-2012) 소 2016 제54회 부산예술제 명품연극열전 3인3색전 1탄 '론더풀 투나잇'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0 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01, 3148) 소 2016 제54회 부산예술제 명품연극열전 3인3색전 1탄 '론더풀 투나잇'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1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3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 V 'Reformation'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5) 중 김은정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윤예술기획(010-9025-2012) 소 2016 제54회 부산예술제 명품연극열전 3인3색전 1탄 '론더풀 투나잇'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2 중 2016 제1회 다이아믹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8:00 균일 1천원/조문제스트링(010-6563-7321)
26 대 부산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제34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510-1739) 소 김현임의 춤 19:30 무료/김현임(010-4546-1545)	27 대 월드브리지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콘서트 '가을과 멘델스존' 19:30 20만원·10만원·5만원·3만원 공철무(010-3074-0366) 중 창작극 '담살이 의병장 안규홍' 19:00 무료/보성군 문화관광과(061-850-5202)	28 대 펜데레츠키&신포니아 바르소비아 19:30 13만원·9만원·6만원·3만원 OPUS(1544-5142) 중 남구오륙도구립여성합창단 2016 정기연주회 19:30 무료 남구오륙도구립여성합창단(010-9386-9527)	29 중 '디에이드' 그들의 첫걸음 'Reborn' 18:00 균일 5만5천원/에이드뮤직(070-4327-2570) 소 토요상설무대 '부산시립합창단'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



LA 뮤직센터

그리고 신, 구의 조화가 이룬 눈부신 성과



LA 오페라, LA 필하모닉

글·사진 이 상 훈 드림원정대 대표





01



03

- 01 도로시 찬들러 파빌리온 야경
- 02 도로시 찬들러 파빌리온 전경
- 03 LA 오페라 예술감독 플라시도 도밍고



02

여기 코너에서 미국의 공연장을 다루는 건 처음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로스엔젤레스(이하 LA)의 공연장과 공연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볼 생각이다.

한동안 우리 국적기 1, 2번기는 인천발 LA행 왕복노선으로 대한항공 KE 001/002편이었다.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니 1972년 4월 김포 > 도쿄 > 호놀룰루 > LA로 가는 노선이 첫 비행이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중, 장거리를 한 번에 갈 수 없었기에 주유를 위한 경유지로 하와이에 들린 모양이다. 그래서 최근 001편은 인천발 호놀룰루편으로 바뀌었다.

제법하고 그만큼 LA라는 도시는 거리에 비해서 왕래가 많은 곳이며, 현재에도 가장 많은 교포들이 사는 해외도시 중 한 곳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뉴욕 다음 가는 인구와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현재 도심 내 거주 인구만 400만으로 광역권까지 합치면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할리우드를 시작으로 월트디즈니의 본사와 디즈니랜드, 우리에게 익숙한 다저스 구단과 아름다운 롱비치의 해변, LA하면 금세 떠오르는 것들이다. 하지만 미국 내 제2위 도시이자 우리에게 익숙한 LA의 공연문화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가끔 명절 때 한국 가수들의 교포를 위한 해외 공연소식 정도가 언론에서 다뤄질 뿐. 하지만 2000년 이후 클래식을 중심으로 LA는 공연 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이제 더 이상 Made in Hollywood, Disney와 같은 영상 산업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LA 공연문화의 중심에는 LA 뮤직센터(LA Music Center)가 있다. 다운타운에 위치한 이 복합 문화센터는 미국 내 뉴욕의 링컨센터 다음의 규모를 자랑하는 공연시설로 그 메인 홀은 3,200석 규모의 도로시 찬들러 파빌리온(Dorothy Chandler Pavilion)이다. 그리고 2,000석 규모의 아만손 극장(Ahmanson Theater)과 750석 규모의 마크테이퍼 포럼(Mark Taper Forum)이 있어서 뮤지컬과 연극 공연이 무대에 올라간다.

오늘은 도로시 찬들러 파빌리온에 상주해 있는 LA 오페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LA 오페라의 전신은 1948년 창립한 시민 그랜드 오페라(Civic Grand Opera)이지만, 작품 제작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아 뉴욕시티 오페라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가져다 상연했다. 1964년부터는 지금의 도로시 찬들러 파빌리온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1984년 이후로는 LA 뮤직센터의 재정으로 자체 제작을 하기 시작했지만 가속이 붙은 건 2003년부터 스페인 출신의 오페라 가수 플라시도 도밍고(Placido Domingo)가 예술감독을 맡으면서부터이다.



LA 필하모니 음악감독 구스타보 두다멜

홍행 보증수표나 다름없는 그 자신이 직접 출연하거나 때로는 우디 앨런 같은 할리우드의 감독 등이 연출을 맡으면서 LA 오페라만의 색깔을 냈다. LA 오페라로서는 도밍고가 플레이 코치(감독 겸 선수)인 셈이다. 그의 명성과 영향력은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들을 이 곳으로 걸음하게 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단숨에 LA 오페라가 우뚝 서는 데 기여를 했다.

필자는 2012/13 시즌 개막공연으로 베르디의 오페라 '두 명의 포스카리인(I DUE FOSCARI)'을 도로서 찬들러 파빌리온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유럽의 여느 오페라 프로덕션 못지 않은 제작실력을 보여주었다. 물론 절정의 연기를 펼치는 도밍고가 그 중심에 있었다. 1941년생인 도밍고는 현재도 오페라 무대 최다배역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이렇듯 LA 오페라를 거물 오페라 가수인 도밍고가 그 부흥을 이끌어 현재에 이르렀다면, 반대로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신예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Dudamel)이 지휘봉을 잡고 새 역사를 쓰고 있다. 1981년생인 그는 베네수엘라 태생으로 *엘 시스템아(El Sistema)' 출신이다. 2009/10 시즌 LA 필하모닉 음악감독에 취임했을 때 그의 나이 불과 28살이었으니 정말 파격적인 인사인 셈이다. 심지어 특별한 배경도 없다.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외교적으로 상극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다멜이 처음은 아니었다.

1962년 25세의 젊은 지휘자 주빈 메타(Zubin Metha)가 그에 앞서 LA 필하모닉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그것도 무려 18년 동안. 그는 심지어 인도인이다. 어찌면 캘리포니아라는 지역 자체가 여러 인종이 섞여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문화가 일찌감치 자리잡은 곳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현재 LA 필하모닉은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와 더불어 서부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했으며 중부의 시카고, 클리블랜드 심포니, 동부의 보스턴 심포니, 필라델피아 필하모닉 그리고 뉴욕 필하모닉과 더불어 미국 내 Big 7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영국에서 발행하는 세계 최고의 음반 전문지 그라모폰 주도로 전 세계 유력 일간지 소속 음악평론가



04

- 04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내부
- 05 오페라 '두 명의 포스카리인' 팸플릿
- 06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전경



05



06

들이 투표한 월드 Top 20 오케스트라에서 LA 필하모닉은 뉴욕 필하모닉에 앞서 8위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LA 필하모닉의 승승장구에 이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보금자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페라 공연을 염두에 두고 지은 도로시 찬들러 파빌리온은 사실 관현악 공연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컸다. 이에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인 릴리언 디즈니가 5천만 달러를 기부, 총액 2억 7400만 달러를 들여 10여 년의 기간이 걸려 지난 2003년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Walt Disney Concert Hall)이 완성됐다.

건축의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프랭크 게리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외관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덮고 그 외부는 장미꽃이 피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마치 은색을 뒤집어 쓴 영성한 마분지 상자 같다는 혹평도 있지만 그 독특한 모양의 건물은 이내 LA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음향은 도쿄 산토리 홀을 설계한 일본의 음향학자 야스히사 도요타(Yasuhisa Toyota)가 내부를 설계, 완벽한 음향효과가 나도록 했다. 무대 홀이 중앙에 있어 모든 청중이 무대를 향해 앉을 수 있도록 2,200여 좌석이 배치가 된 것이 특징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멋진 공연장에서 젊은 지휘자가 지휘하는 LA 필하모닉은 확실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제 LA는 할리우드가 전부가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비옥한 땅 위에는 세계 정상급 오페라단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커나가고 있다.

*'엘 시스템아(El Sistema)'는 음악을 통해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대의 산유국이며 고질적인 빈곤과 범죄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브레우 박사는 조국의 빈민가 아이들에게 총이나 마약 대신 악기를 안겨주고 음악을 가르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협동, 질서, 소속감, 책임감 등의 덕목과 가치를 심어주고자 했다. 처음에 수도 카라카스(Caracas)의 한 빈민가 차고에서 11명의 단원으로 출발한 '엘 시스템아'는 2010년 기준으로 베네수엘라 전국에 190여 개의 분부, 26만여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은 이 '엘 시스템아'가 배출한 최대의 인재이자 최고의 스타이다.

제14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Rejoice after Suffering

고난에서 환희로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2016년 10월, 대구의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을 오페라축제가 찾아온다. '오페라의 도시 대구'라는 수식어를 안겨준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지난 2003년 대구오페라하우스 개관과 함께 첫 발을 내딛은 후 지난해 '2015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등급과 음악분야 1위라는 성적을 얻으며 전국 최고의 음악축제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오페라축제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2016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주제는 '베토벤 정신'으로 잘 알려진 '고난에서 환희로 Rejoice after Suffering'. 수세기를 거쳐 입증된 훌륭한 예술작품에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고양시켜주는 힘이 있으며, 수준 높은 오페라작품을 통해 더 나은 내일로 함께 가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올해 오페라축제에서는 푸치니의 '라 보엠', '토스카', 비제의 '카르멘' 등 대중적

인 인지도가 높은 작품들은 물론 베토벤의 '피델리오', 글루크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등 국내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작품들까지 오페라 애호가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들을 만난다.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메인무대의 첫 번째 작품은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제작한 푸치니의 인기 오페라 '라 보엠(La Boheme)'.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시오페라단과 함께 제작한 오페라 '라 보엠'은 작품 전반에 걸쳐 감미롭고도 아름다운 유명 아리아들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9세기 젊고 가난한 예술가들의 꾸밈없는 사랑과 삶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세계 유명 극장들의 주요 레퍼토리로 무



토스카

대에 올려지고 있다. 독일 에어푸르트 극장장 기 몽타봉이 연출하는 이번 무대는 대구국제 오페라축제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라 보엠’ 전막무대로, 한국 대표 소프라노 이윤경과 마혜선, ‘모든 면에서 완벽한 로돌포’로 극찬 받은 빈 국립극장의 전속 테너 정호윤, 특유의 미성을 자랑하는 테너 강동명, 유럽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바리톤 이동환과 베이스 전태현 등 완벽한 캐스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메인무대는 독일의 본국립극장이 선보이는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Fidelio)’. 전막무대로서는 대구에서 첫 선을 보이는 ‘피델리오’는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이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하고도 세 번의 개작을 거친 작품으로, 억울하게 갇힌 남편 페르난도를 구하기 위해 남장을 한 채 교도소에 잠입한 여인 레오노라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오스트리아 린츠극장에서는 18세기 다소 과장스럽고 지나치게 성악 중심적이었던 이탈리아 바로크 오페라의 형식에서 벗어나 관현악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결합시키는 시도를 통해 ‘근대 작품의 시초’로 평가받고 있는 ‘오페라 개혁가’ 글룩의 대표작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무대에 올린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세계 정상급 실력을 지닌 린츠극장의 무용수 20여 명이 펼치는 아름다운 발레를 감상할 수 있어 국내 어디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발레 오페라’만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매년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 최고의 네임밸류(Name value)를 자랑하는 국립오페라단은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Tosca)’로 대구를 찾는다. ‘토스카’는 단 하루밤 사이에 세 남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랑과 오해, 배신 등 다양한 사건들을 긴박하고 밀도 높게 구성해 ‘베리스모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작품으로, 서정성과 카리스마를 모두 갖춘 테너 김재형, 폭발적인 성량과 표현력을 자랑하는 바리톤 고성현 등 세계 오페라 무대를 장악한 정상급 성악가들이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2016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마지막 무대는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성남아트센터와 함께 제작한 비제 오페라 ‘카르멘(Carmen)’. 프랑스 작곡가 비제의 ‘단 하나의 역작’으로 불리는 ‘카르멘’은 오페라 사상 최대의 인기를 자랑하는 매혹적인 오페라로, 이번 무대에서는 유명 연출가 정갑균,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로 국제적 명성을 쌓은 지휘자 성시연과 그가 이끄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기대를 모은다.

■ 주요일정

-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및 데뷔 30주년 기념 조수미 콘서트
9월 29일(목) 오후 7:30 대구오페라하우스
- 오페라 ‘라 보엠’[메인공연]
10월 6일(목)~7일(금) 오후 7:30, 8일(토) 오후 3:00 대구오페라하우스
- 아마추어 소오페라 ‘버섯피자(La pizza con fungi)’
10월 8일(토)~9일(일) 오후 3:00, 6:00 우봉아트홀
- 오페라 ‘피델리오’[메인공연]
10월 13일(목) 오후 7:30, 15일(토) 오후 3:00 대구오페라하우스
- 우리오페라, 우리아리아
10월 20일(목) 오후 6:00 오페라살롱
-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메인공연]
10월 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3:00 대구오페라하우스
- 살롱오페라 ‘오이디푸스 왕(Oedipus rex)’
10월 25일(화)~26일(수) 오후 7:30 오페라살롱
- 오페라 ‘토스카’[메인공연]
10월 28일(금) 오후 7:30, 29일(토) 오후 3:00 대구오페라하우스
- 오페라 ‘카르멘’[메인공연]
11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대구오페라하우스
- 폐막콘서트&오페라대상 시상식
11월 5일(토) 오후 8:00 대구오페라하우스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을 키우는 아동·청소년 전문극장 안데르센 극장

아동·청소년극 전문극장으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잠정 문을 닫으면서 큰 아쉬움을 남겼던 '안데르센 극장'이 다시 어린이들 곁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11월 20일 기장군이 예산을 들여 기장군 장안읍 기장도예촌에 문을 연 안데르센 극장은 서울 종로 아이들극장, 광주 어린이문화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아동·청소년 전문극장으로, 개관 당시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안데르센 극장은 원래 '문화게릴라'로 유명한 연출가 이윤택 씨가 일광 바닷가에 지을 예정으로 구상했던 아동·청소년 전문극장으로, 이윤택 씨의 구상을 보도로 접한 오규석 기장군수가 이곳 기장도예촌에 건립을 제안하면서 지금의 안데르센 극장이 탄생했다. 그러나 개관 한 달여 만에 민간 위탁 문제를 놓고 기장군청과 군의회가 갈등을 벌이면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올해 3월 예산심의가 통과되고 극단 가마골이 다시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면서 지난 8월 6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기장도예촌 입구를 지나 조성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언덕배기 위 진달래색으로 선명한 2층 건



물이 눈에 들어온다. 극장은 프로시니엄 무대와 240석의 관람석, 분장실, 조정실로 구성된 공연장과 사무실, 매표소, 북카페 등으로 구성된 사무동 등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석은 아동·청소년 전문 극장답게 객석 경사를 높게 줘 무대 시야를 확보하면서 어린이 관객의 눈높이에 맞췄다.

현재 안데르센 극장에서는 안데르센의 레퍼토리로 구성된 상설공연과 기획공연이 나란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 안데르센 레퍼토리로는 원래 2시간짜리 공연이었던 '안데르센'이라는 작품을 두가지 극으로 구성한 '미운오리새끼'와 '인어공주', 그리고 연출가 이윤택이 직접 연출을 맡아 함께 온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새롭게 탄생시킨 '눈의 여왕' 등 세 작품이 공연되고 있다. 2014년 국립극장에서 초연무대를 가진 가족극 '안데르센'은 안데르센이 쓴 '어른을 위한 동화 7편과 자서전'을 극작가 이윤택과 연출가 이윤주가 각색해 만든 작품으로, 구두수선공 아들로 태어나 신분적 결핍과 못생긴 외모, 학력 등으로 평생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안데르센의 숨겨진 자전적 이야기를 그의 동화와 함께 풀어낸 작품이다. 연출가 이윤택의 첫 가족극이자 극단 가마골 대표였던 故 이윤주 연출가의 유작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지난 2014년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15년에는 아스테지 어린이겨울축제 개막작으로 초청받는 등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기획공연으로는 2015 한국연극 대상 '작품상'과 '연기상'을 수상한, 시인 백석의 시와 삶을 그린 '백석우화'와 민간설화와 민요, 동요, 우리 장단과 가락이 함께 하는 가족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 구두쇠 스크루지 이야기를 뮤지컬로 창작한 캐럴 뮤지컬 '스크루지'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상설공연은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사흘에 걸쳐 진행되며, 보다 넓은 관객층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획공연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무대에 올려진다. 10월에는 '미운오리새끼', '인어공주'가 관객과 만나며, 기획공연인 '백석우화'는 10월 마지막 주 주말 무대에 오른다.

안데르센 극장은 기장군청에서도 차량으로 20여 분 넘게 소요된다. 대

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라 공연이 있는 날은 차를 몰고 오거나 하루에 두 번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교통이 불편한데도 공연이 있는 날이면 어린 자녀들과 손잡고 찾아오는 가족들로 평일 한적하기만 하던 극장은 어느새 관람객들로 북적거린다.

“보통 아동극을 관람하러 가면 아이들은 극장에, 부모들은 공연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데르센 극장에서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아동극이 아닌 부모와 자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가족극을 레퍼토리화함으로써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극단 가마골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연출가 김하영 씨는 앞으로 연극 상연 외에도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공연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극장 투어 및 작가 연출 배우와의 만남, 연극·뮤지컬 직접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 안데르센 극장과 기장군청에 자리한 차성아트홀 그리고 내년 1월 일광에 문을 여는 가마골 소극장 등 세 곳의 극장이 협업한다면 앞으로 국제적인 아동청소년연극페스티벌 추진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는 김하영 대표는 이에 앞서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 공연축제인 아스테지 축제가 안데르센 극장에서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공연시간/** 금요일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일요일 오후 3:00(상세한 일정은 인터넷카페 참조)

*셔틀버스 운행시간/ 오전 10:20, 오후 2:20 출발(지하철 4호선 안평역 2번 출구-물조은온천-안데르센극장/정관어린이도서관-안데르센극장)

- **관람료/** 일반 2만원 · 어린이, 기장군민 1만원
- **문의/** 안데르센 극장(723-0568, cafe.naver.com/andersentheater)

포도향 가득한 자연 속에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졌던 영천여행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9월 9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190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9월 테마여행지는 포도향 가득한 아름다운 고장 '영천'. 국내 최대 포도 생산량을 자랑하는 영천은 달콤한 포도가 영그는 가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유래없었던 폭염도 어느새 물러가고 선선한 기운이 아침저녁으로 묻어나던 9월 9일 아침, 테마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 가족들이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반복되던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 떠나는 여행에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핀다. 특히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강은태, 장용균 씨가 동행하면서 회원들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두 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포도 최대 생산지인 영천이 자랑하는 영천와인학교. 와인 제조가 가능한 머루포도(MBA) 주산지로, 국내 와인생산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는 영천은 지난 2007년부터는 와인클러스트 사업을 시행, 와이너리(와인 양조장) 조성과 와인개발센터, 와인공장, 와인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와인사업단 직원의 안내로 영천와인학교를 둘러보았다. 대형 오크통 모양을 한 독특한 건물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 와인학교는 와인양조 실습장과 와인저장고, 와인터널, 와인카페 등을 갖춘 국내 최초의 와인학교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한 와인전문가를 육성해오고 있다. 회원들은 와인제조과정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와인을 만들기 위해 와인 체험장인 '고도리 와이너리'로 자리를 옮겼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고도리 와이너리 대표 최봉학 씨의 안내로 와인만들기에 필요한 포도따기에 나섰다. 저마다 한가득 수북히 딴 포도를 들고 와이너리로 자리를 옮긴 회원가족들은 최봉학 사장의 설명에 따라 수확한 포도를 투명용기에 넣고 잘 으갠 후 세균의 번식을 막기 위한 아황산과 발효를 위한 효소를 넣고 자신의 이름을 적은 뚜껑으로 봉했다. 이렇게 제조된 와인은 1차 발효 후 포도껍질을 걸러내는 착즙과정과 2차 발효과정을 거친 후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세달 후에 자신만의 고유한 와인으로 탄생된다. 와인만들기 후 펼쳐진 '포도껍질 멀리 뺐기' 게임에서는 포도껍질을 가장 멀리 뺐은 회원들에게 상품으로 영천포도 한 박스가 제공되기도 했다. 영천와인 두 병을 두고는 예정에 없던 노래경연대회가 펼쳐지면서 어느새 체험장은 흥겨운 웃음과 박수소리로 넘쳐났다.

와이너리에서 제공하는 맛깔스러운 점심으로 식사를 마친 후 회원들이 고대하던 부산시립합창단 단원들의 작은 콘서트가 펼쳐졌다. 단원 강은태, 장용균 씨는 누구나 즐겨 부르는 가요를 주 레퍼토리로, 여행의 즐거움을 신나는 노래로 풀어내면서 회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콘서트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오후 일정지인 임고서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고서원은 고려말의 충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서원으로,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영천은 정몽주 선생이 태어나 자란 고향으로, 임고서원 외에도 최초의 임고서원지인 부래산과 임고서원 서북쪽에 위치한 부모 묘소, 그리고 우항리에 새로 조성된 선생의 생가와 선생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유허비 등 선생과 관련된 다양한 유적지가 남아있다.

현재 문충사, 홍문당, 영광루, 함육재 등 건축물과 정몽주 선생의 영정 2폭, 포은 문집, 지방유설, 포은집 등 200여 권의 중요한 서적이 소장되어 있는 임고서원은 특히 지난 2012년 5월, 7여 년 간의 '임고서원 성역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유물 전시관과 전통 한옥구조의 생활체험관, 원형극장, 연못, 녹지공간 등이 새롭게 조성되기도 했다.

임고서원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우선 영상실에서 포은선생의 충효와 그의 정신이 담긴 임고서원의 역사를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감상한 회원들은 포은 선생의 출생부터 출중했던 관직 생활,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조종(祖宗)으로 평가 받는 그의 학문 및 충의지사(忠義之士)로 추앙 받는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고문서와 영상으로 전시된 포은관과 포은 선생의 충효정신을 담은 임고서원의 연혁과 영남사람(嶺南士林)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영천의 성리학과 성리학자들을 고문서를 통해 소개하는 임고관을 차례로 둘러본 후 임고서원 앞에 자리한 선죽교로 자리를 옮겼다.

정몽주 선생이 이방원에게 살해당한 선죽교는 북한 개성에 있는 돌다리로, 현재 북한의 국보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원래는 선지교(善地橋)로 불리었으나 선생이 살해당한 후 다리 옆에서 참나무 가지가 솟구쳐 나오면서 선죽(善竹)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다고 한다. 임고서원에 있는 선죽교는 이 개성의 선죽교를 그대로 재현해 선생의 충절을 기리고 있다.

임고서원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포도향 가득한 자연 속에서 역사와 문화, 예술이 공존했던 영천 테마여행은 숙성된 와인의 향긋함만큼이나 오랫동안 정기회원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11월 11일 합천 해인사 소리길 탐방

해인사에서 홍류동 계곡 약 6km 길이에 달하는 문화생태탐방 명소 '소리길'과 소리길을 품고 있는 해인사의 역사탐방을 통해 역사와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해인사 도착, 해인사 탐방
- 12:00 중식(해인사), 자유시간
- 13:00 생태해설사와 소리길 탐방
- 15:00 대장경테마파크 탐방,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00 부산으로 출발



12월 9일 삼성현의 정신문화가 살아있는 경산 겨울여행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삼성현(원효·설총·일연)의 훌륭한 정신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산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경산 도착, 임당·조영동 고분군 탐방
- 12:00 중식
- 13:00 자인향교, 계정숲, 한장군묘 탐방
- 15:00 삼성현역사문화공원 탐방,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30 부산으로 출발

10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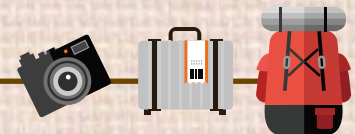
- | | |
|----------------|----------------|
| 곽향순(사하구 감천로) | 민유솜(부산진구 진남로) |
| 권영호(부산진구 냉정로) | 배경희(동래구 안남로) |
| 권유미(해운대구 해운대로) | 송정운(연제구 월드컵대로) |
| 김학준(수영구 수영로) | 안명희(북구 금곡대로) |
| 노대영(북구 화명신도시로) | 이근순(동래구 문화로) |

● 기존 회원

- | | |
|----------------|--------------|
| 구학송(북구 화명신도시로) | 박영희(남구 황령대로) |
| 권유진(동구 중앙대로) | 박원석(남구 우암로) |
| 고수진(동구 중앙대로) | 박창열(남구 석포로) |
| 김황연(사하구 사하로) | 이혜숙(금정구 개좌로) |
| 김희자(남구 석포로) | 한길남(남구 황령대로)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으로 보내주시요.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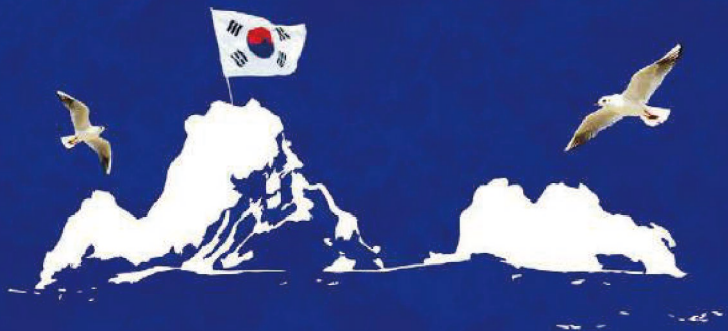
| 신청방법 | 엽서·전화·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607-31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드도 속 세 번째 이야기 &



제30회 부산청소년 합창제

출연단체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쌍어송파이터
- 산유화어린이민요합창단
-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 수정꿈드림합창단
- 부산KBS어린이합창단
- 정관소녀소녀합창단
- 부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
- 동래초등학교 옥새미합창단
- 부산북구소년소녀합창단
- 부산사상구소년소녀합창단

특별단체

- 해군작전사 군악대

2016. **10. 25(화) 19: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초대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홍보팀 607-3108 / 공연운영팀 607-3146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서해대교(무료) · 출발지_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_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CULTURE

LIFE

October 2016
vol.298

INVITATION TO THE ARTS

26 프리뷰

36 리뷰

38 프로그램 가이드

56 새로 나온 음반

57 새로 나온 책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W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29회 부산합창제



부산 합창인구의 저변확대와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부산시립합창단이 매년 마련해 온 아마추어 합창단들의 축제 '제29회 부산합창제'가 10월 5일부터 나흘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10.5(수)-8(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08, 3142

지난 1985년 시작된 후 올해로 29회를 맞는 부산합창제는 그동안 다양한 합창단을 발굴, 서로 교류하며 공연의 장을 펼침으로써 지역 합창음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 부산합창제는 역대 합창제로서는 최다 참가팀인 39개팀이 참가, 합창으로 하나되는 화합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첫 날인 10월 5일에는 부산대 경헌해피파이어(지휘/이외균, 반주/김은경)을 비롯해 해운대 NO老 실버합창단(지휘/고봉수, 반주/김아영), 붓다 보이스코어(지휘, 반주/이찬우), 해운대소리합창단(지휘/김진영, 반주/김주영), 금성하모니(지휘/손욱, 반주/최여진), 부경한소리합창단(지휘/조성빈, 반주/정은희), 솔내음하모니합창단(지휘/이순희, 반주/김주리),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지휘/오동주, 반주/이승운), 부산콘서트콰이어(지휘/김성모, 반주/배미나), 부산원음합창단(지휘/이은정, 반주/조은지), 부산시립합창단(지휘/전상철, 반주/이승운)이, 6일에는 신라시니어스콰이어(지휘/이은정, 반주/남현숙), 부산백병원합창단(지휘/안준희, 반주/성아람), 카메라타합창단(지휘/권영옥, 남구시니어합창단(지휘/박성수, 반주/김미경), 정관여성햇빛합창단(지휘/김성복, 반주/전미리), 부산진구피오레여성합창단(지휘/김철수, 반주/조미영), 해운대 NH여성합창단(지휘/김연주, 반주/김명조), 아모르합창단(지휘/박정희, 반주/고영주), 예그리나합창단(지휘/강종철, 반주/이현숙), 센텀합창단(지휘/이칠성, 반주/박재나), 부산시립합창단(지휘/전진, 반주/이승운)이 무대에 오른다.

7일에는 경남여고수정합창단(지휘/조익래, 반주/김은실), 필그림여성콰이어(지휘/박정희, 반주/진은경), 예그린합창단(지휘/손욱, 반주/이영희), 사하민들레합창단(지휘/이외균, 반주/김은경),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지휘/이은정, 반주/조은지), 부산브라보아버지합창단(지휘/이성훈, 반주/구화진), 마린콰이어(지휘/황장수, 반주/김경미), 목련합창단(지휘/오동주, 반주/하신혜), 부산여

성합창단(지휘/김성복, 반주/전미리), 현대나르시어(지휘/이경선, 반주/엄혜경), 뮤즈콘서트콰이어(지휘/김태호, 반주/최은혜), 부산시립합창단(지휘/전진, 반주/이경미)이, 마지막 날인 8일에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건륜, 반주/이영옥), 진주여고 동백합창단(지휘/이정철, 반주/이경미), 부산갈맷합창단(지휘/구영립, 반주/김다연), 부산은파합창단(지휘/이홍길, 반주/윤민화), 에버그린코러스(지휘/이정철, 반주/이경미), 부산하모니합창단(지휘/김태우, 반주/김민선), 남부산농협청솔합창단(지휘/강학운, 반주/손혜진), 글로리콰이어(지휘/이정철, 반주/이경미, 박성미), Bella voce 합창단(지휘/조현수, 반주/이현주), 부산시립합창단(지휘/전상철, 반주/이경미)이 출연, 세계민요와 가곡, 가요 등 다양한 합창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지휘/전상철)은 합창제가 열리는 나흘 동안 참가 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서며 합창제 마지막 날인 8일에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오프닝무대를 장식한다.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6 부산원아시아 페스티벌 개최 기념 **클래식 饗宴**

지휘 스킷 유가



한류(韓流)를 테마로 한 아시아 대표 문화콘텐츠축제 '2016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한·중·일 출신의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는 '클래식 향연'이 10월 12일과 14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10.12(수)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0.14(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14일은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6, 3100

바이올리니스트 후미야키 미우라



이번 무대에서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 루이스 오비스포 모자의 페스티벌 음악감독이자 메타모르포젠 체임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스킷 유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2009년 세계적 명성의 하노버 국제콩쿠르에서 16세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후미야키 미우라, 현재 텍사스주립대학교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비온 창, 2011년 프랑스 에피날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김다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영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풍성한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오고 있다. 세계적 권위의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와 에이버리 피셔상 그랜드 수상자인 첼리스트 비온 창은 그동안 홍콩 필하모닉, 애틀랜타 심포니오케스트라, 세인트 폴 체임버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 대만국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에 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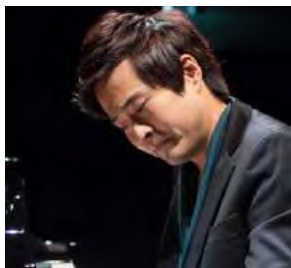
첼리스트 비온 창



현대음악 전문 지휘자로도 유명한 지휘자 스킷 유는 세인트 폴 체임버오케스트라의 '예술 조력자'(Artistic Collaborator)라는 영예로운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보스턴에 있는 조단 홀에서 메타모르포젠 체임버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 시리즈를 맡고 있다. 2001~2002 시즌 메타모르포젠 체임버오케스트라와 미국 26개 도시 순회 연주회를 가진 바 있는 스킷 유는 2005~2006 시즌에는 홍콩 심포니에타,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버지니아 심포니 등을 지휘했으며 2010~2011 시즌에는 세인트 폴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카네기 홀 데뷔무대, 브리튼 심포니와 유럽 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2011년 프랑스 에피날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 외에도 2008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 2010 퀴 엘리자베스 콩쿠르, 2011 뮌헨 ARD 국제음악콩쿠르, 2012 스위스 게자 안다 국제 콩쿠르 등 수많은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리고 있다. 장르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영은 뉴욕 메네스 음대를 졸업한 후 2003년 귀국 후,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 오스트리아 레히 클래식 뮤직 페스티벌, 부산국제음악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팝스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피아니스트 김다솔



지난 2009년 하노버 국제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과 함께 청중상, 음악평론가상을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후미야키 미우라는 2012년 프라하 필과의 일본 투어, 2013년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도쿄 공연, 2014년 루브르 박물관 리사이틀, 2015년 한류 린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독일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10월 12일에는 솔로연주자로도 무대에 서는 스킷 유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바이올리니스트 후미야키 미우라, 첼리스트 비온 창,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협연자로 무대에 서며, 14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무대에 서는 스킷 유와 후미야키 미우라, 첼리스트 비온 창, 피아니스트 김다솔과 비올리스트 김가영, 플루티스트 엘리스 데이드가 아름다운 실내악 앙상블을 들려준다.

바이올리니스트 김가영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6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기념 중국은천예술극원 '월상하란(月上賀蘭)'



한류(韓流)를 테마로 한 아시아 대표 문화콘텐츠 축제 '2016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를 기념해 중국의 대형 창작무용극 '월상하란(月上賀蘭)'이 오는 15일과 16일 이틀간 부산을 찾는다.

10.15(토)-16(일) 오후 5: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만원, S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42, 3100

중국 내 소수민족 중 하나인 회족(回族)을 주인공으로 한 중국 최초 창작무용극인 '월상하란(月上賀蘭)'은 중국은천예술극원이 지난 2004년부터 3년간에 걸쳐 제작한 대형 창작무용극으로, 중국 내에서도 독특한 풍습을 지닌 회족(回族)의 오랜 역사와 민족문화를 담은 작품이다. 중국 내 소수민족 중 장족(壯族), 만주족에 이어 인구 규모로 세 번째로 큰 민족인 회족은 원나라 때 중국에 들어와 정착하게 된 아랍, 중앙아시아계 무슬림 혼혈민족으로, 역사적으로 중국 내에서 독특한 민족형성 과정을 거쳐 현재는 중국 내 소수민족 중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창작무용극 '월상하란(月上賀蘭)'에서는 이런 회족의 기원을 총 4막의 무용극으로 펼쳐보인다. 수천 년의 고대 실크로드 노선을 따라 서역에서 출발한 무슬림 상단이 하란산(賀蘭山) 기슭 아래 황하평원을 지나가게 되고 현지 한족 등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아 고비사막과 황하를 넘게 된다. 이 때 사랑에 빠지게 된 상단 청년 나소와 현지 처녀 해진은 민족과 신앙, 생활습관마저 극복하고 하란산 자락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점차 회족의 규모도 변성해지기 시작한다.

'월상하란(月上賀蘭)'을 제작한 은천예술극원은 중국 북서부 황토 고원에 자리한 회족의 고향 '닝샤 회족 자치구(寧夏回族自治区)' 은천시(銀川市)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로, 지난 1958년 창립된 후 무용극에서부터 무용, 각종 설창(設唱), 성악, 악기, 마술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문화상', '목단상', '연꽃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7년 12월 닝샤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경국제무용축제'에서 첫 선을 보인 '월상하란(月上賀蘭)'은 이듬해인 2008년 '심천국제문화전시회 예술축제', 2012년 3월 장쑤성 창저우대극원 대극장, 안후이성 합비대극원, 산둥성 청도대극원 공연에 이어 4월 광둥성 심천보리극원, 광둥성 동완옥란대극원, 쓰촨성 충칭대극원 무대에 올려져 많은 박수를 받았다.

프로그램

서막/ 달 밝은 밤, 광활한 고비사막을 걷어가는 서역 상단. 상단두목 하싼은 이미 수년간 서역과 중원을 오갔다. 아들 나소도 이번 상단을 따라 다니며 용감하고도 멋진 무슬림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제1막/ 사막을 건너던 상단은 다른 상단을 통해 비적떼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하싼은 상단을 이끌고 다른 험한 지름길을 택하지만 사막폭풍의 습격을 받게 된다.

제2막/ 하란산(賀蘭山) 자락 황하 연안의 영하평원(寧夏平原)은 수초가 비옥하기로 유명하다. 양치기 소녀 해진은 우연히 사막 폭풍으로부터 피난해온 상단을 만나게 되고 상단은 해진의 아버 백노인의 안내로 무슬림 관습에 따라 휴식을 취하면서 해진과 나소의 사랑이 꽃피게 된다.

제3막/ 해진과 나소의 사랑은 백노인과 하싼 두 노인의 화를 불러오게 되고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해진과 나소는 사랑의 증표로 서역 주자와 검은 하란석을 주고 받는다.

제4막/ 하란산 자락에서 해진은 나소를 그리워하고 화물을 가득 싣고 돌아오는 길에 비적떼의 습격을 받은 하싼은 큰 부상을 당하게 된다. 죽기 전 하싼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해진과 동네사람들의 깊은 정에 감동하고 해진과 나소의 사랑을 허락한다. 상단은 하싼이 죽은 후 무슬림 장례식을 치루고 동쪽 하란산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결말/ 하란산 자락에서 서역 상단의 후예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현지 주민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나간다.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축하 공연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

지휘 이정필



아시아문화와 한류(韓流)로 아시아인들이 하나 되는 아시아 대표 문화콘텐츠축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를 축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이 10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10.18(화)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05, 3143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중국광파민족악단 고쟁연주자이자 중국음악학원 특별초빙교수인 주전(Zhou Zhan)과 절강음악학원 국악과 부교수인 고쟁연주자 성양(Sheng Yang), 마카오 중국민족음악단 생황 수석연주자 지아레이(Jia Lei), 중국 길림성 연변가무단 단원이자 장세납 연주자 김호운, 중국광파민족악단 적자 수석연주자 후장청(Hou Chang Qing), 백두한라북한예술단 부단장이자 소해금연주자 박성진의 협연으로, 중국과 마카오, 북한의 고유음악을 국악관현악 연주로 들려준다.

첫 무대는 지난 1994년 한·중·일 3국의 연주자들로 결성된 '오케스트라 아시아'의 창단연주회를 위해 작곡된 박범훈 곡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 경기민요 '뱃노래'를 테마로 한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는 오케스트라 아시아가 뜻을 달고 세계를 향해 출범하는 분위기를 표현한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 힘찬 뜻을 올리는 새로운 아시아 민족음악에 대한 염원을 담아 들려준다.

이어지는 곡은 중국의 전통 현악기 '고쟁'의 맑으면서도 화려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중국음악학원 교수 황효비의 고쟁협주곡 '애강두(哀江頭)'를 만날 수 있다. 두보의 시 '애강두'에 묘사된 '안록산의 난'을 4악장의 애절한 선율로 그려낸 작품으로, 중국 고쟁 연주자 주전과 선양의 듀오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마카오 생황연주자 지아레이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이준호 곡 생황협주곡 '풍향'은 살갓에 스치는 바람의 부드러운 소리의 정감을 맑고 부드러운 생황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국악기 중에서도 2가지 이상의 음을 동시에 낼 수 있는 유일한 화음악기인 생황연주를 만날 수 있다.

국악기 태평소를 개량해 맑고 풍부한 음색이 돋보이는 북한 악기 장세납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최영천, 정춘일 곡 장세납 협주곡 '용강기나리'는 평안도 용강(룡강)지방에서 만들어져 전국에 퍼진 서도민요 중 하나로, 한국 재외동포 전통예술경연대회 대상, 중국 공작새껍 소수민족 기악표현대회 우수상, 연변예술축제민족악대 연주1등상 등을 수상한 장세납 연주자 김호운의 협

연으로 들려준다. 국악기 중 가장 높은 음역을 지닌 소금을 위해 작곡된 이준호 곡 소금협주곡 '길'은 농악장단인 '칠채'와 '육채'를 바탕으로 고도의 테크니컬한 주법과 현대적인 기법이 관현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중국의 취주악기인 적자(笛子) 연주자 후장청의 적자 협연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이경섭 곡 소해금 협주곡 '추상'. 한없이 푸르고 높게만 보이던 가을 하늘, 그 어릴 적 한가로웠던 가을의 기억을 떠올리는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북한 평양예술대학 출신으로 지난 2006년 귀순한 우리나라 유일의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의 소해금 협연으로 들려준다. 소해금(小奚琴)은 1960년대 해금을 바이올린과 비슷하게 현대적으로 개량한 북한악기로, 바이올린과 해금의 중간 소리를 내는 독특한 음색의 악기이다.

Preview

제12회 부산국제합창제

부산국제합창제



2002년 부산국제합창올림픽을 시작으로 2005년 APEC 합창제를 거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로 성장한 부산국제합창제 2016년 축제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영화의전당과 소향씨어터 등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10.18(화)-21(금)

영화의전당, 소향씨어터, 해운대 동백섬 외 부산 전역

입장료 균일 1만원(경연공연은 무료)

문의 부산국제합창제 조직위원회
070-4172-0682

올해로 12회를 맞는 부산국제합창제는 국내 18개 합창단 1,000여 명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노르웨이, 캐나다 등 10개국 19개 합창단 600여 명이 부산을 찾는다. 경연에 참가하는 합창단은 국내 4개팀을 비롯해 19팀으로, 합창제가 열리는 나흘 동안 영화의전당에서 클래식 혼성, 클래식 동성, 민속음악, 팝&가스펠, 청소년 등 5개부문을 나누어 경연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매일 오후 8시 소향씨어터에서는 세계 정상급 합창단들이 꾸미는 '초청 앙상블 콘서트'가 펼쳐진다. 10월 18일 개막식과 함께 펼쳐지는 축하공연에서는 노르웨이의 전문혼성합창단 오슬로 챔버 콰이어(Oslo Chamber Choir)가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지난 1984년 창단한 오슬로 챔버 콰이어는 그동안 노르웨이 민속음악을 합창음악에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합창무대를 선보여오면서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개막공연과 1996년 노르웨이 교회 1,000주년 기념식, 그리고 유럽 연합의 문화 도시 전시회에 노르웨이 대표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서울에서 열렸던 제10회 세계합창심포지엄에서 국내외 합창음악인들로부터 가장 큰 호평을 받았던 오슬로 챔버 콰이어는 최근 유럽과 아시아, 미국 등 세계 각국 콘서트와 축제에 초대받으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튿날인 19일 열리는 초청 앙상블 콘서트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보컬앙상블 '뮤지카 인티마(Musica Intima)'로, 흠 잡을 데 없는 음악적 기교와 앙상블 음악에 대한 독특한 시각으로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지난 1992년 창단된 뮤지카 인티마는 ATMA 음반사와 함께 총 6장의 앨범을 발매했으며, 그중 into light(2010)는 서부 캐나다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클래식 음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Juno Awards 2개 부문 노미네이트, BBC 뮤직 매거진에서 별 10개 리뷰를 받기도 했다.

초청 앙상블 콘서트 마지막 무대는 2016 부산국제합창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코 마츠시타 교수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도쿄 메트로폴리탄 코러스(The Metropolitan Chorus of Tokyo · MET). 여러 합창단의 단원들로 구성된 혼성 합창단인 도쿄 메트로폴리탄 코러스는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 참여는 물론 음반 녹음, 해외 연주, 각종 워크숍 및 마스터클래스의 시범합창단 등을 통해 국제적인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부산국제합창제 마지막 날인 21일 오후 5시 영화의전당에서는 5개의 경연부문에서 우승한 최고의 합창단이 대상을 놓고 겨루는 최종경연 및 시상식이 펼쳐진다. 시상식에 앞서서 이번 부산국제합창제에 참가한 합창단 단원들로 구성된 2개의 축제합창단이 부산국제합창단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안톤 암스트롱(미국 세인트 올라프대학), 이해중(미국 영스타운 주립대) 교수의 지휘로 세계인이 합창으로 하나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Preview

부산 유일의 종합예술축제
제54회 부산예술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향연 제54회 부산예술제가 10월 19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10.19(수)-11.5(토)

부산광역시청,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예술회관

문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051-631-1377

부산예술제는 지난 1963년 부산시의 직할시 승격을 경축하기 위해 시작된 종합예술축제로, 1966년 부산종합예술제를 거쳐 1978년 부산예술제, 1980년 부산무대예술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0년부터 다시 부산예술제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산예술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0월 21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개막식 이후 펼쳐지는 부산음악협회 주최 '가곡과 아리라의 밤'에서는 소프라노 이혜진, 전이순, 테너 양승엽, 홍지형, 바리톤 박대용과 남성양상블 해븐싱어즈, 그리고 중국 청도의 성악가들이 함께 무대에 선다. 부산무용협회가 마련하는 '제54회 부산무용예술제'는 10월 24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강미선 춤·결 무용단의 '지진춤(김진홍류)'을 비롯해 신정희발레단의 창작 발레 'Flowers and dewdrop' 등 한국전통무용과 발레, 한국창작무용,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부산연극협회가 준비한 2016 명품연극열전-3인 3색전 1탄 '몬더폴 투나잇'은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상사에 울고 웃는 사회적 약자들의 힘겨운 삶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는 가온아트홀 1관에서 펼쳐진다. 부산문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회 지역문학작품 교류전'에서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은 부산 및 타 지역 시인 작품 교류전 및 시 낭송회, 국내 저명 시인 초청 강연회, 주요 도시 시인 초청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부산연예예술인협회가 마련하는 '2016 제17회 실버가요제'는 10월 23일 오후 3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영화인협회 주최 '제17회 2016 부산영화제'는 10월 30일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영화상영회 및 제작발표회, 시상식을 갖는다. 부산예술제 마지막 날인 11월 5일 오후 6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국악협회가 마련하는 '해외자매도시와 함께하는 전통 음악교류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밖에 예술제 기간에는 공연 외에도 다양한 전시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부산건축가협회가 한·중·일 초대건축가 작품교류전으로 마련하는 '제17회 국제건축도시디지털사진전'은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청 제1전시실에서, 부산미술협회 주최 '2016 해외자매도시 미술교류전 및 부산미술대작展'은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청 제2, 3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부산시민회관 1, 2층 전시실에서는 부산꽃예술작가협회 '꽃, 창공을 날다'전이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데 이어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는 '2016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회원전'이 펼쳐진다. 이번 회원전에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회원 분 아니라 아마추어 사진동호인, 그리고 부산시 해외자매도시인 미얀마, 일본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3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 V 'Reformation'

지휘 아드리엘 김



첼리스트 문태국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운 서정을 들려줄 부산 시립교향악단 제523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 V Reformation'이 10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10.21(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6, 3145

독일언론 '라인할츠'로부터 '특유의 분위기를 창조해내는 감각과 통찰력 있는 정확한 해석능력을 갖춘 지휘자'라는 호평을 받은 지휘자 아드리엘 김이 지휘하고 차세대 첼리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첼리스트 문태국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레오노레' 서곡을 시작으로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작품 104', 멘델스존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을 들려준다.

객원지휘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지휘자 아드리엘 김은 8세 때 바이올린을 시작, 13세 때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데뷔무대를 가진 후 오스트리아로 유학, 빈 국립음대에서 바이올린과 지휘를 복수 전공해 각각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졸업과 동시에 무지크 페라인 홀에서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지휘자로 데뷔무대를 가진 아드리엘 김은 같은 해 이탈리아 스폴레토에서 개최된 제14회 프랑코 카푸아나 유럽 오케스트라 지휘자 콩쿠르 파이널리스트에 올랐으며, 2009년에는 요르마 파놀라 국제지휘콩쿠르 3위 입상으로 소프라노 바바라 헨드릭스와 공연하며 유럽 음악계에 이름을 알렸다. 2010/2011 시즌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 부지휘자로 발탁되면서 유럽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아드리엘 김은 도이치 방송교향악단, 빈 라디오 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유럽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며 지난 2013년 월간 객석이 뽑은 한국의 차세대 아티스트 10인에 선정되었다. 아드리엘 김은 현재 디토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첫 곡으로 베토벤이 남긴 오페라 '피델리오'의 서곡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는 '레오노레' 서곡 제3변에 이어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작품이자 첼로협주곡 중 걸작으로 꼽히는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작품 104'를 첼리스트 문태국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첼리스트 문태국은 제15회 성정전국 음악콩쿠르 최연소대상, 독일 올덴부르크 청소년국제콩쿠르 1등, 제3회 앙드레 나바라 국제첼로 콩쿠르 1등, 2014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쿠르 1등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수많은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4년 금호영재독주회, 2006년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독주회를 시작으로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수차례 독주회를 가졌던 문태국은 지난 2014년에는 부산국제음악제 라이징 스타로 초청받아 무대에 서기도 했다.

이번 연주회의 마지막 곡은 카톨릭교와 루터 사이에 벌어지는 종교적인 이념과 정신의 투쟁을 장엄하게 묘사한 멘델스존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 무거운 주제에 걸맞게 극적으로 표현된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은 1832년 11월 베를린에서 멘델스존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으나,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한동안 연주되지 못하면서 초기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멘델스존이 사망한 지 한참 뒤인 1868년 출판되어 오늘날까지 활발히 연주되고 있다.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사랑의 묘약'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기존 오페라의 무대세트 등 고가의 연극적 장치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소품과 의상으로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해온 특별한 무대 '오페라 인 콘서트' 무대가 11월 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11.4(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6, 3145

지난 2009년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를 시작으로 음악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오페라 인 콘서트'는 이번 무대에서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의 낭만적 수작으로 평가받는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까지 '오페라 그라츠'에서 객원지휘자로 활동한 아르헨티나 태생의 지휘자 호세 미구엘 에산디가 지휘하고 '바이로이트의 영웅'으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선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 '고음악계 최고의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임선혜, 지난 7월 세계적인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젊은 음악가 발굴을 위해 개최하는 '오페렐리아 국제오페라콩쿠르'에서 1위 및 청중상을 수상하며 주목 받은 테너 김건우,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박대용, 소프라노 김시하,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이 출연,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시민과 처음 만나는 지휘자 호세 미구엘 에산디는 그동안 포르투갈 상카를루스 국립극장, 포르투갈 국립발레단,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심포니, 암스테르담 시립극장, 브뤼셀 라 모네 극장, 프랑스 낭시의 로렌 국립오페라, LA 오페라 등 유럽과 미국의 우수 오페라단 및 극장에서 활동해왔으며 최근 2015/16 시즌 그리그와 차이코프스키 프로그램으로 콜론 극장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부에노스아이레스 데뷔 무대를 가지기도 했다.

지난 2012년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주역으로 화제를 모은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은 2004년 처음으로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파르지팔'로 데뷔한 후 매년 이 무대에 서며 '영웅 바리톤'으로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다. 유럽의 자존심인 고음악의 정상에 우뚝 선 소프라노 임선혜는 필립 헤레베헤, 윌리엄 크리스티, 지기스발트 쿠이켄, 프란츠 브뤼켄, 파비오 비온디, 톤 코프만, 르네 야콥스 등 고음악계 거장들을 비롯해 주빈 메타, 리카르도 샤이, 마렉 야누스키, 만프레드 호빅 등 세계적인 지휘자와 함께 활동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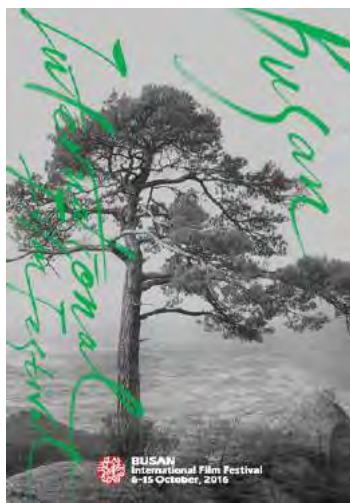
현재 독일 마인츠 국립음대 콘체르트액자멘 과정에 재학 중인 테너 김건우는 최근 2년 사이에

2015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에서 1위, 2016 서울 국제음악콩쿠르에서 2위를 비롯하여 프랑스 마망드 오페라 국제콩쿠르, 이탈리아 루비니 국제성악콩쿠르, 폴란드 모니우츠코 국제성악콩쿠르, 이탈리아 잔도나이 성악콩쿠르, 이탈리아 마르첼로 조르다니 성악콩쿠르 등 세계적 권위의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라이징 스타로 세계무대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박대용은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치레아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및 엔나 국제콩쿠르 3위, 콜레페로 국제성악콩쿠르 2위, 프랑코 코렐리 국제성악콩쿠르 뮤제극장상을 수상했으며 그동안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소프라노 김시하는 Leopold Mugnone 국제콩쿠르 1위, 도니제티 특별상, Giulietta Simionato 국제콩쿠르 2위, Archimede 국제콩쿠르 2위 수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이태리음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1번째 영화의 바다로 나아가다

2016 부산국제영화제



10월 6일(목)~15일(토)

CGV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메가박스 해운대, 소항씨어터 센텀시티, 영화의전당

개·폐막식 2만원, 일반상영작 6천원,

3D·4DX 8천원, 미드나잇 패션 1만원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1666-9177, www.biff.kr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영화의 바다로 21번째 항해를 시작한다.

지난 2년간 성장통을 겪으며 영화제 개최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던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예년과 다름없는 풍성한 성찬을 준비하면서 영화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전 세계 69개국 301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상영작품 중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월드 프리미어는 96편, 자국 외 최초상영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는 27편에 달한다. 특히 경쟁부문인 '뉴커런츠' 상영작은 전편이 월드 프리미어로,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개·폐막작으로는 장률 감독의 '춘몽', 후세인 하산 감독의 '검은 바람'이 선정됐다. 개막작인 '춘몽'은 지난 2011년 송일근 감독의 '오직 그대만'에 이어 5년 만에 개막작으로 선정된 한국영화로, 특히 2005년 영화 '망종'으로 뉴커런츠상을 받은 후 세계적인 시네아스트로 인정받고 있는 장률 감독의 영화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작은 술집을 운영하며 전신마비 아버지를 돌보는 젊은 여자와 그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세 명의 남자 이야기를 담은 '망종'은 그동안 조용한 관조를 통해 날카로운 현실 비판을 해왔던 기존 영화들과 구별되는 풍성한 유머와 여유를 보여준다. 배우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라크 후세인 하산 감독의 세 번째 장편 극영화인 '검은 바람'은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납치된 약혼녀 폐로를 찾아 떠난 청년 레코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로, 지고지순한 사랑과 전통적 가치관, 종교관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지난 내홍 과정에서 영화제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줬던 세계 영화인의 연대를 확인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시아 영화 거장들이 진행하는 특별대담 '아시아 영화의 연대를 말한다'에서는 한국 이창동 감독과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대만의 허우 샤오시엔이 참여한다. 허우 샤오시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올해 신작이 없지만 BIFF를 지지하는 뜻에서 부산을 찾는다. 와이드앵글 단편 쇼케이스 부문에 초청된 '우리 시대의 예술'은 현대 동남아 영화를 대표하는 에릭 쿠, 호유향, 조코 안와르,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브릴안테 멘도사 등 감독 5명의 작품을 엮은 유니버스극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감독들의 지지의 뜻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첫 상영을 강력하게 희망해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한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세계 영화인들의 이런 성원에 보답하듯 영화제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 수호에 대한 의지로 자국에서 상영금지되었던 이란의 모흐센 마흐말바프 감독의 '자안데루드의 밤'과 카말 타브리지 감독의 '순례지에서 생긴 일'을 이번 영화제를 통해 처음 상영한다.



2016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개막작 '출몽' 1
- 미드나잇 패션 '유지엄' 2
- 한국영화의 오늘 '고산자' 3
- 오픈시네마 '국가의탄생' 4
- 폐막작 '검은바람' 5



◦ 갈라 프레젠테이션

세계적 거장의 신작이나 화제작, 월드프리미어 등을 소개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총 4편의 작품이 선보인다.

◦ 아시아 영화의 창

지난 한 해 아시아 영화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아시아 영화의 창'에서는 올해 총 56편의 작품이 선보인다.

◦ 뉴커런츠

재능 있는 아시아 신인 감독을 발굴하기 위한 경쟁부문으로, 올해는 희망의 땅을 찾아나서는 아프가니스탄 젊은이들을 그린 이란·아프가니스탄 작품 나비드 마흐루디 감독의 '이별' 등 10개국 11개 작품이 국내 관객과 만난다.

◦ 한국영화의 오늘

화제의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파노라마'는 특히 초청작 28편 가운데 10편이 장편극영화 데뷔작일 정도로 한국영화 작가들의 새로운 발견이 두드러진다.

◦ 한국영화 회고전 '장르의 해결사 이두용'

올해 한국 영화 회고전의 주인공은 액션, 멜로, 사극, 사회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수작을 선보인 이두용 감독으로, 그의 대표작 8개 작품이 상영된다.

◦ 플래시 포워드

비아시아권 신인감독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영화를 통해 세계영화의 젊은 흐름을 살펴보는 '플래시 포워드'에서는 올해 신인감독들의 독창성과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35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 월드시네마

올 한 해 비아시아권 영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월드시네마'에서는 거장들의 신작이 주목을 끈다.

◦ 와이드 앵글

다큐멘터리, 단편, 애니메이션, 그리고 실험영화 등 새로운 시선과 도전의식으로 무장한 수작들을 선보이는 '와이드 앵글'에서는 올해 74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 오픈시네마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신작 및 국제적인 관심을 모은 화제작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오픈 시네마'에서는 올해 8편의 작품이 선보인다.

◦ 특별기획 프로그램

지난 7월 고인이 된 그리스의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 회고전과 중남미 영화 신흥 강국인 콜롬비아의 영화를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미드나잇 패션

부산국제영화제의 주말 밤을 책임져줄 '미드나잇 패션'에서는 8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제 3회 부산 챔버뮤직 페스티벌



신설령 음악평론가

올해로 제3회를 맞는 '부산 챔버뮤직 페스티벌'이 9월 8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 지휘자 금난새의 사회 및 해설로 시작된 첫째 날은 기타 연주자인 제이콥 켈러만과 바이올린 연주자 다니엘 미그달이 함께 연주하는 <듀오 케미>가 전반부를 이끌었다. 감미로운 기타의 짧은 솔로 연주에 이은 두 번째 연주곡은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4곡 중 '카페 1930', '나이트클럽 1960' 두 곡이었다. 이 곡은 바이올린 외에도 플루트, 클라리넷, 첼로 등의 선율악기가 피아노, 기타, 반도네온 등과 함께 짝을 이루며 다양한 조합으로 연주되는 곡이다. 그런데 이날의 연주는 바이올린과 기타가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처럼 환상적인 호흡의 연주를 선보였다. 선율을 노래하는 바이올린의 음색도 아름다웠고, 때때로 선율을 넘겨받아 연주하는 기타 연주자의 음악성이 돋보이기도 했던 연주였다.

'카페 1930'에서는 마치 카페에서 그들의 삶의 애환을 얘기하듯이 그렇게 마주보며 눈빛을 주고받으며, 또한 지나간 날을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고 미소를 주고받으며 음악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었다. '나이트클럽 1960'에서는 이제 30년의 세월이 흐르며 장소 또한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기고, 둘은 함께 리듬을 맞추고 연주를 즐기며 또 다른 분위기의 탱고를 들려주었다. <듀오 케미>는 두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조합으로 만들어진 그룹 이름이다. 그런데 그 이름처럼 둘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케미'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기타 연주가 그토록 바이올린 연주에 잘 녹아들어간다는 것, 그러면서도 두 연주자의 음악적 표현의 깊이는 그대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들의 좋은 연주는 아마도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연주곡은 비탈리의 '사콘느'였다. 바이올린 연주자 김다미는 요즈음 해외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장래가 촉망되는 연주자이다. 김다미는 파워풀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음악을 끌고 가는 힘이 좋았다. 게다가 집중력도 뛰어나고 감수성도 풍부하여 좋은 연주자로서의 면모를 모두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피아노를 맡은 이효주는 단순한 화음의 반주부분도 깊이 있는 음악으로 바꿔 바이올린 연주에 음악적 깊이를 더하는 멋진 음악 동반자였다.

마지막 연주는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제1번으로 바이올린 김다미, 피아노 이효주, 첼로 이정란이 연주했다. 피아노 트리오 <제이드>는 근래 실내악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한 팀이다. 이번에는 <제이드> 멤버인 피아노 이효주와 첼로 이정란과 함께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뀌어 김다미와 함께 연주했는데 각자 기량이 탁월한 멤버들이 모인 탓인지 완벽한 호흡으로 음악을 이끌어나갔다. 꽤 긴 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량의 탁월함으로 빛어내는 이들의 연주는 청중

들로 하여금 실내악의 묘미를 깊이 맛보게 하는, 그리고 연주자들과 함께 멘델스존의 음악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연주였다.

둘째 날 낮에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연주회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미술관을 찾아 문화 예술의 향기를 흠뻑 마시게 하는 기회가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둘째 날 밤에는 <듀오 케미>와 <카메라타 BS>가 함께하는 무대였다. 뉴월드 필하모닉의 수석단원과 부산의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 한 '카메라타 BS'는 짧은 연습시간을 가졌을 터인데도 좋은 연주 무대를 보여주었다.

이번 실내악 페스티벌에서 바이올린과 기타가 함께 연주하는 <듀오 케미>는 분명 많은 청중들에게 환상적인 호흡으로 빛어내는 수준 높은 연주로 색다른 음악적 즐거움을 주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부산 챔버뮤직 페스티벌'에서 그들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았을까?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듀오 케미>의 연주만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그들에게 할애되어 '실내악 페스티벌'에 걸맞은 다양성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카메라타 BS>의 연주 외에 부산 실내악 팀의 연주 무대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다음 제4회 페스티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더 다양하고 멋진 무대를 기대한다.

Review

정통 클래식 뉴 리더십, 오충근 베를린심포니를 지휘하다



탁계석 음악평론가

망원 카메라는 아득히 먼 풍경이나 사물을 바로 눈앞의 것인 양 촬영해 낸다. 이처럼 탁월한 성능이 광학(光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분야에서의 올림픽 금메달을 불굴의 의지로 획득하는 것 역시 꿈을 현실에 옮겨 놓는 것이니까.

유럽 정통 클래식의 본산(本山)인 베를린심포니오케스트라를 한국인 지휘자가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쉽게 꿈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부산문화회관(9월 9일), 거제문화예술회관(10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11일)에 이르는 베를린심포니 내한 투어공연은 그래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베를린심포니가 오충근 지휘자에게 무대를 준 것은 그의 실력이 검증된 것이란 점에서 정명훈 지휘자의 서울시립교향악단 사퇴 이후 한국 지휘계를 걱정하는 시점에서 한줄기 희망이라 할 수 있다.

베를린심포니의 내한을 통해 부산이 문화적으로 격상(格上)하고, 하류층이 문화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이 프로젝트가 추진된 것이라고 본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 과정이 결코 녹록치 않았으리란 예측은 공연 분야를 아는 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 척박한 토양에서 최고의 것으로, 도시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의지의 결정체인 것이다. 또 하나, 중앙 공급식 문화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확보한 것. 이로써 부산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높인 점이다.

최고의 악단을 지휘하는 것은 지휘자에게 영광이지만 성사(成事)에는 숨은 공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부산, 경남의 문화를 이끄는 KNN 방송과 비엔그룹 대선주조가 지휘자 역할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 문화'라는 진취적인 철학을 가졌기에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미 스타가 된 사람에게만 스폰서가 집중되는 우리네 풍토에서 진일보한 메세나 역할이고 진정한 예술투자의 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오충근 지휘자는 시종일관 카리스마와 역동적인 힘으로 단원들과 호흡을 하면서 악단과의 일체감을 형성했다. 우리 악단과 달리 중후한 단원들이 많은 베를린심포니의 굳건한 고유의 사운드를 통해 베토벤의 정수(精髓)를 보여주었을 때 관객이 느끼는 희열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모든 프로그램을 베토벤으로 한 것 역시 정통클래식에 도전하는 지휘자의 승부수다. 수도 없이 많은 연주를 했을 그들의 레퍼토리에 해석을 가하거나 지휘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면 모골(毛骨)이 송연한 위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당당했고 즐기는 연주를 보여주었다. 트리플 콘체르토 역시 우리 여미혜 첼리스트가 외국 두 아티스트와 앙상블의 묘미를 한껏 선사하며 당당한 위치를 확보해 갈채를 받았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90년대에 클래식 대중화에 물꼬를 트고 해설음악회나 각종 풀어서 들

려주는 클래식이 범람했다면, 이제는 '클래식을 더욱 클래식하게' 하는 작업이 우리의 과제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 오케스트라나 예술단체가 안고 있는 방만 운영이나 해묵은 고질 병들이 글로벌 시각(視角)에서 정화(淨化)되어야 한다. 또한 혼돈의 부산문화행정의 난맥상이 이제는 새롭게 출범할 재단법인화를 통해 체계화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다.

오충근 지휘의 베를린심포니는 결국 '부산의 힘'을 보여준 것이고, 그 힘의 지향점은 지금껏 외쳤던 부산이 '세계의 창(窓)'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아니겠는가. 내년 4월 베를린심포니 정기연주회에 오지휘자의 초청 일정이 잡혔다니 바야흐로 부산이 산업이나 상품수출이 아니라 문화로, 지휘로 유럽 시장에 선보이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잠재력에 도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설렌다. 부산은 앞으로 문화행정력도 키우고, 새로 지어질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에 무엇을 채울까를 고민하는 소프트웨어의 혁신도 필요하다. 물론 그 선두에 지휘자 리더십이 있을 것이고, 세계화 물꼬가 터지는 순간 환경은 급변한 요구를 해줄 것이다. 글로벌 한류시대에 지휘자, 행정, 극장의 트리플콘체르토가 부산문화를 더욱 세계에 빛내어 주기를 바란다.

다니엘 호프와 친구들

일 시 | 10월 1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10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1일)
R석 2만원, S석 1만원(2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42, 6065

“자클린 뒤 프레 이후 가장 매력적인 현악 주자”라는 호평을 받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호프와 유럽 3대 챔버 오케스트라로 손꼽히는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Zurich Kammer Orchestre)의 무대.

1일 다니엘 호프와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비발디/‘사계’ 중 ‘여름’
쇼스타코비치/현과 트럼펫,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제1번 작품 35

막스 리히터(편곡)/비발디 ‘사계’
• 연주/다니엘 호프(바이올린), 박종화(피아노), 브루스 배리(트럼펫),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

2일 다니엘 호프&박종화, 이경선, 안톤 스프론크

[프로그램]

코다이/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작품 7
드보르작/2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3중주 다장조 작품 74

드보르작/피아노 5중주 가장조 제2번 작품 81
• 연주/다니엘 호프(바이올린), 박종화(피아노), 안톤 스프론크(첼로)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가을밤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사랑나눔음악회

일 시 | 10월 3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UKO 010-3863-3087



지난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가을밤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사랑나눔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들과 전문 연주자 120여 명으로 구성된 U.K.O.는 이번 무대에서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영화 ‘엘베라 마디간’ 주제곡으로도 유명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을 비롯해 영화 ‘시네마천국’, ‘스타워즈’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 주제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 지휘/이동신
- 바이올린/임병원
- 테너/오동주
- 피아노/이진성
- 소프라노/오미선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무지카비바 ‘바로크 & Today’

일 시 | 10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바로크로부터 고전, 낭만, 현대음악, 재즈, 탕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타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무대를 통해 실내악의 저변확대에 힘쓴 무지카비바 ‘바로크 & Today’.

[프로그램]

비발디/현을 위한 협주곡 다장조 Rv114 ‘파리’
비발디/‘사계’ 중 ‘가을’
헨델/오페라 ‘리날도’ 중 ‘올게하소서’
구노/아베마리아

이영조/줄풍류 II ‘하늘 천 따지’
임지선의/신들러리스트 주제에 의한 파사칼리아 바흐/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 1043’
칼 젠킨스/현을 위한 협주곡 ‘팔라디오’(Palladio)

- 바이올린/ 박경희, 홍기정, 오근영, 우소라, 최은혜, 고연경, 안은택, 김신실
- 비올라/박주연, 유리아
- 첼로/전영희, 심아라
- 협연/박경희(바이올린), 김현숙(소프라노), 우소라(바이올린), 정준화(클라리넷)
- 베이스/박희철
- 피아노/서혜리

부산시립합창단 제29회 부산합창제

일 시 | 10월 5일(수)~8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08, 3142

지난 1985년 시작된 후 올해로 29회를 맞는 부산합창제는 특히 올해 역대 최다 참가팀인 39개팀이 참가, 합창으로 하나되는 화합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5일 부산대 경헌해피콰이어, 해운대 NO老 실버합창단, 붓다 보이스코이어, 해운대소리합창단, 금성하모니, 부경한소리합창단, 솔내음하모니합창단,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 부산콘서트콰이어, 부산원음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6일 신라시니어스코이어, 부산백병원합창단, 카메라타합창단, 남구시니어합창단, 정관여성햇빛합창단, 부산진구피오레여성합창단, 해운대 NH여성합창단, 아모르합창단, 예그리나합창단, 센텀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남성합창)

7일 경남여고수정합창단, 필그림여성콰이어, 예그린합창단, 사하민들레합창단,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 부산브라보아버지합창단, 마린콰이어, 목련합창단, 부산여성합창단, 현대나르시어, 뮤즈콘서트콰이어, 부산시립합창단(여성합창)

8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진주여고 동백합창단, 부산갈멜합창단, 부산은파합창단, 에버그린코러스, 부산하모니합창단, 남부산농협정충합창단, 글로리아어, 벨라보체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홍영혜 아쟁 독주회

일 시 | 10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홍영혜 010-2607-0904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아쟁수석,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아쟁연주자 홍영혜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인도를 여행한 느낌을 국악선율로 표현한 김만석의 아쟁협주곡 ‘천축’을 시작으로 깊은 슬픔이 담겨있는 윤용석류 아쟁산조, 행악, 무속 및 춤 반주음악으로 자주 연주되는 취타풍류 등을 들려준다.

- 장구/송강수
- 대금/한영길
- 피리/김경수
- 신디사이저/강매라

제12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일 시 | 10월 7일(금)~9일(일) 중극장, 대·중전시실, 중앙광장

문의 | (사)부산차문화진흥원 809-1551
www.busanatea.kr



현대인의 생활 속에 점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차 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하고 여유로운 삶을 재발견하기 위해 개최되는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2016년 축제.

주요 일정
대전시실/선고茶人 헌다, 조선통신사 행렬의상 전시, 한·중·일 삼국 명품전-유한복, 천년 주치의美, 향합전시-윤권, 향로 전시 및 향도 시연, 체험-이원복, 마음수행의 차-전미애

중전시실/茶書展-박태만, 하카타전통공예 프로모션전, 칠 다구전-차기정, 일장삼님 ‘선서화 초대전’, 두리茶회

중극장/한국 도자기문화와 일본 차문화 강의, 개막작 ‘차향이 전하는 이야기(茶香傳詞)’
중앙무대/전통 성년례-(사)부산전통문화원, 궁정장악 공연-어울림국악연구회, 궁중예복입기 체험-노진복식문화원, 장흥군 차 생산자협회 여임다원 청대전 만들기 체험 및 시음회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일 시 | 10월 8일 토요일 오전 10: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 513-4306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문화 정착을 위해 (사)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가 마련하는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지난 2008년 부산파라미터협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제1회 대회를 가진 후 올해로 9회를 맞는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는 전국 중·고교 합창단 20여 팀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8개팀이 본선 경연을 펼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대상 1개팀을 비롯해 금상 2개팀, 은상 2개팀, 동상 3개팀을 선정, 시상한다. '파라미터'는 불교 보살의 수행덕목인 바라밀다(波羅蜜多)의 인도식 표기(범어)로 '어둠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

참가학교

대전중학교, 마산고등학교,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상지여자중학교, 세인고등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송곡고등학교, 선부고등학교, 장안제일고등학교, 진해여자중학교

조두남, 김성태, 김동진, 이흥렬 가곡의 밤 바리톤 최성규 독창회

일 시 |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 단원으로 있는 바리톤 최성규 독창회.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C.S.M. Accademia, Arena Accademia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최성규는 그동안 두 차례 독창회를 비롯 MBC 목요음악회, 슈베르트 서거 200주년 기념음악회, 광복동거리 송년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으며 오페라 '리골레토', '이말과 크리스마스 밤', '비밀결혼' 등 오페라 주역과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활동해왔다.

노엘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하기도 한 최성규는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강사, 신라대학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가곡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조두남, 김성태, 김동진, 이흥렬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김예지
- 특별출연/소프라노 최영희(경성대학교 4학년)

UM Chamber Orchestra 창단연주회 Unique Moment

일 시 |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박광식 010-5606-5207



2014년 바로크에서부터 현대의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구, 연주하기 위해 결성된 UM 챔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클래식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요구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청중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획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인 UM 챔버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울산영재청소년오케스트라, 울산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박광식이 지휘하고 2004년 칼 넬슨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9세의 나이로 한국인 최초 우승과 함께 덴마크 작곡가 작품 특별상, 젊은이 인기상을 두루 석권한 데 이어 200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의 협연으로 바흐, 피아졸라, 보르디의 곡을 들려준다.

- 지휘/박광식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6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기념 클래식 饗宴

일 시 |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1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14일은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5~6, 3100



한류(韓流)를 테마로 한 아시아 대표 문화콘텐츠 축제 '2016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클래식 饗宴'.

미국 캘리포니아 샌 루이스 오비스포 모자이크 페스티벌 음악감독이자 메타모르포제 체임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스캇 유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2009년 세계적 명성의 하노버국제콩쿠르에서 16세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바이올리니스트 후미야키 미우라, 현재 텍사스 주립대학교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비온 창, 2011년 프랑스 에피탈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김다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영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풍성한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10월 12일에는 스캇 유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고 바이올리니스트 후미야키 미우라, 첼리스트 비온 창,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협연자로 무대에 서며, 14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무대에 서는 스캇 유와 후미야키 미우라, 첼리스트 비온 창, 피아니스트 김다솔과 비올리스트 김가영, 플루티스트 엘리스 데이트가 아름다운 실내악 앙상블을 들려준다.

12일 프로그램

한국민요/아리랑
 라벨/차간느
 리스트/피아노 협주곡 제1번 내림마장조 작품 124
 베토벤/로망스 제2번
 차이코프스키/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라벨/볼레로
 • 지휘/스캇 유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협연/김다솔(피아노), 후미야키 미우라(바이올린), 비온 창(첼로)

14일 프로그램

드뷔시/시랑크스
 모차르트/플루트 사중주 라장조
 하이든/피아노 삼중주 제39번 '집시'
 코다이/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브람스/피아노 사중주 제1번
 • 바이올린/스캇 유, 후미야키 미우라
 • 첼로/비온 창 • 플루트/엘리스 데이트
 • 비올라/김가영 • 피아노/김다솔

베이스 바리톤 양재원 독창회

일 시 |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수석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데트몰트 국립음대 성악과 전문연주자과정, 오페라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베이스 바리톤 양재원 독창회. 라인스베르크 왕실 감머 오페라 주최 국제오페라 콩쿠르 2년 연속 베이스 부문에서 수상한 양재원은 독일 데트몰트 주립극장 전속 주역가수, 빌레펠트 시립극장, 라인스베르크 왕실 감머오페라, 브라운슈바이크 주립극장, 브란덴부르크 시립극장, 크레펠트 뮌헨 클라트바흐 시립극장 객원 주역가수로 활동하며 다수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활동해왔다.

양재원은 현재 고신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예술고등학교 실기강사, 한국가곡연구회 회원, 사상여성합창단, 부산시의사회합창단 메디코러스, 한소망교회 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 피아노/김현경
- 특별출연/박혜영(소프라노), 이성관(색소폰)

피아노로 보고 듣는 오페라 여행

일 시 |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피아니스트 고은경, 금찬이, 장진이, 홍지혜와 함께 떠나는 오페라 여행.

고은경은 고신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로, 금찬이는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초빙교수, 경성대학교, 울산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장진이는 고신대학교 음악과와 상명대학교 음악대학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신라대학교 외래교수로, 홍지혜는 고신대학교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유명 오페라 서곡을 피아노 연주로 들려준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6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기념

중국은천예술극원 '월상하란(月上賀蘭)'

일 시 | 10월 15일-16일 토-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42, 3100



한류(韓流)를 테마로 한 아시아 대표 문화콘텐츠 축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를 기념해 부산을 찾는 중국 창작무용극 '월상하란(月上賀蘭)'. 중국 내 소수민족 중 하나인 회족(回族)을 주인공으로 한 '월상하란(月上賀蘭)'은 중국은천예술

극원이 지난 2004년부터 3년간에 걸쳐 제작한 대형 창작무용극으로, 중국 내에서도 독특한 풍습을 지닌 회족(回族)의 오랜 역사와 민족문화를 담은 작품이다. '월상하란(月上賀蘭)'을 제작한 은천예술극원은 중국 북서부 황토 고원에 자리한 회족의 고향 '닝샤 회족 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은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로, 지난 1958년 창립된 후 무용극에 서부터 무용, 각종 설창(說唱), 성악, 악기, 마술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왔다.

EBS 당동댕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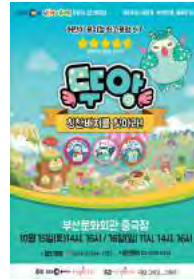
뚜앙-칭찬배지를 찾아라

일 시 |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2:00, 4:00, 16
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6:00

중극장

입장료 | 칭찬석, 뚜앙석 4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 의 | (주)플랜씨앤씨 02-6265-6334



EBS 어린이 프로그램 '당동댕유치원'의 인기 캐릭터인 뚜앙을 주인공으로 한 어린이 뮤지컬 '뚜앙-칭찬배지를 찾아라'. 오늘도 활기찬 뚜앙체조로 아침을 연 당동댕 마을, 칭찬배지를 받고 싶어 찾아와 울며 떼를 쓰는 그림이는 삼촌의 도움

으로 도전에 성공한다. 그림의 도전을 칭찬해주기 위해 뚜앙이 칭찬배지를 만들지만 귀여운 악당 '스타맨'의 훼방으로 엉망이 되면서 3개의 칭찬배지가 사라지는데...

2016년 상반기 인터파크에서 최고 평점을 받은 '뚜앙-칭찬배지를 찾아라'는 관객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용기와 도전으로 헤쳐나가는 모험 속에서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참여형 어린이 뮤지컬이다.

제19회 오륙도 음악회

일 시 |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강학윤 010-9287-6350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와 천혜의 주변 환경을 널리 알리고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누구나 함께 즐기며 화합하는 제19회 오륙도 음악회.

부산남구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지역 성악가들이 출연,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구민영, 김정은, 박순희
- 테너/강학윤, 양수배
- 바리톤/박찬, 배용 • 반주/손혜진
- 피아노/최은주 • 바이올린/여주현
- 첼로/하경희
- 합창/남부산농협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축하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

일 시 |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05, 3143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중국 광파민족악단 고쟁연주자이자 중국음악학원 특별초빙교수인 주전과 절강음악학원 국악과 부교수인 고쟁연주자 성양, 마카오 중국민족음악단 생활 수석연주자 지아레이, 중국 길림성 연변가무단 단원이자 장세남 연주자 김호윤, 중국광파민족악단 적자 수석연주자 후장청, 백두한라북한예술단 부단장이자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의 협연으로, 중국과 마카오, 북한의 고유음악을 국악관현악 연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 박범훈/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
- 이영우(편곡)/고쟁협주곡 '애강두(哀江頭)'
- 이준호/생활협주곡 '동향'
- 최영천, 정춘일(편곡/김대성)/장세남협주곡 '용강기 나리'
- 이준호/소금협주곡 '길'
- 이경섭/소해금협주곡 '추상'
- 지휘/이정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주전, 성양(고쟁), 지아레이(생활), 김호윤(장세남), 후장청(적자), 박성진(소해금)

A.O.B 앙상블 창단연주회

일 시 |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A.O.B 앙상블 010-8912-8237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등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젊은 연주자 13명으로 창단한 A.O.B 앙상블 창단연주회.

'Artist Of Busan'의 줄임말인 A.O.B 앙상블은 앞으로 정기연주회 뿐 아니라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 발전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창원시립교향악단 악장이자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단원, 인제대학교 겸임교수와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의 협연으로, 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피아졸라와 바흐, 차이코프스키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피아졸라/탱고발레
- 바흐/바이올린 협주곡 가단조 BWV.1041
- 차이코프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작품 48
- 연주/이준, 남가영, 조우태, 장혜진, 박리란, 진소영, 김상지, 이강수, 김상지, 박예송, 김민경, 박지인
- 협연/바이올리니스트이리나

소프라노 권미현 독창회

일 시 |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윤예술기획 010-9025-2012



이화여자대학교와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내외 오페라 및 콘서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권미현 독창회.

이미 국내에서 음교공쿠르, 계명대학교 공쿠르, 숙명여자대학교 공쿠르, 신영옥 성악공쿠르, 부산시 교육청 공쿠르 등에서 입상한 바 있는 권미현은 이탈리아 유학시절 ASSAMI 국제공쿠르에서 1위 수상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페르골레시, 슈만, 김효근, 드뷔시, 구노, 도니제티 등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서혜리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3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 V 'Reformation'

일 시 |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6, 3145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운 서정을 들려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3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 심포니 V Reformation'. 독일언론 '리인할츠'로부터 '특유의 분위기를 창조해내는 감각과 통찰력 있는 정확한 해석능력을 갖춘 지휘자라는 호평을

받은 지휘자 아드리엘 김이 지휘하고 차세대 첼리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첼리스트 문태국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레오노레' 서곡을 시작으로 드 보르작 '첼로협주곡 작품 104', 멘델스존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을 들려준다.

- 지휘/아드리엘 김
- 객원악장/신상준(계명대학교 교수)
- 협연/첼리스트 문태국

김은정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윤예술기획 010-9025-2012



부산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도독,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학사와 석사, 미국 신시내티 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및 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피아니스트 김은정 독주회. 2014년 귀국독주회 이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친 김은정은 미국 신시내티 Piano Concert Salon21 시리즈에 초청되어 Weston Gallery에서 독주회를 가졌으며, 독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협연자, 실내악 연주자, 반주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은정은 현재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독우회 회원, Cincy-A 피아노 트리오, 연주단체 스테이플러스 멤버로 활동하며 영남대학교 외래교수, 인제대학교 반주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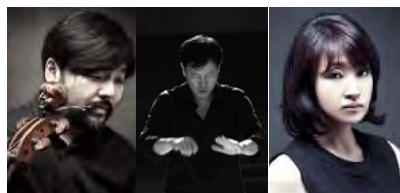
- 슈만/어린이의 정경 작품 15
-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1번 내림가단조 작품 110
- 브람스/피아노 소나타 제1번 다장조 작품 1

2016 제1회 다이나믹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조문제스트링 010-6563-7321, 010-8258-0706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실력있는 현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실내악단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력을 쌓으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는 다이나믹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정기연주회.

인제대학교 교수이자 IPB 음악감독으로 있는 양욱진 이 음악감독을 맡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이자 IPB 대표로 있는 이광식이 상임지휘자로 있는 다이나믹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창원시립 교향악단 악장, IPB 단원, 인제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의 협연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클라리네티스트 정준화가 들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

일 시 |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정준화 010-9252-6504



대구 계명대학교와 프랑스 파리 Conservatoire de Val Maubuée 전 문연주자과정(D.E.M) 및 실내악과정, Ecole Normale de Musique de Paris 최고교육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클라리넷과이어, 플레이어스

백, C.O.S 앙상블 단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정준화의 무대.

정준화는 프랑스 Orchestre symphonique du Val Maubuée 오케스트라 수석 및 클라리넷 앙상블 단원을 역임하고 귀국 후 부산시립교향악단 객원 수석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아름다운 소리, 화려한 테크닉을 가진 연주자라는 호평을 받으며 차세대 한국을 대표하는 클라리네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정준화는 이번 무대에서 클라리넷 솔로를 비롯해 부산솔로리스트앙상블과 화려한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 피아노/김영실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한·중·일 교류음악회

일 시 |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010-3376-2246



부산, 경남지역의 교향악단과 대학에 출강하는 젊고 유능한 연주자들로 창단된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한·중·일 교류음악회.

지난 1998년 10월 부산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바로크 시대에서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의 음악을 연주해온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현재 동서대학교 교수, 중국 Tianjin Symphony Orchestra 수석 객원지휘자로 활동하는 지휘자 백진현이 지휘하고 현재 일본 필하모닉 교향악단 수석 트롬본 주자, Brass Ensemble ZERO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트롬본 주자 후지하라 코지로, 중국 최고의 젊은 피아니스트로 각광받고 있는 장 위에가 협연자로 출연, 멋진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독일교포 2세 전통예술인 초청 풍물굿패
소리결 2016 기획공연 Flying Sticks**

일 시 |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풍물굿패 소리결 512-6153,
010-8518-5569



지난 2000년 우리 민족의 전통을 올바르게 이어가기 위해 풍물굿과 사물놀이를 중심으로 결성된 풍물굿패 소리결의 2016 기획공연.

그동안 독일 전통예술 순회공연, 프랑스 파리 루마니페 공연,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풍물굿패 소리결은 이번 무대에서 독일 현지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 우리의 전통예술을 배우고 익혀 한국 전통예술가로 살아가고 있는 독일교포 2세들로 구성된 전통타악팀 '비봉'을 초청,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삼도 사물놀이 가락, 금회복춤, 설장고, 창작모듬북-FLYING STICKS
•출연/풍물굿패 소리결, 교포2세 전통타악팀 비봉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독도 세 번째 이야기&제30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일 시 |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08, 3146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지정한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를 소재로 한 창작곡을 들려주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0회 부산청소년합창제를 겸해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지역 10개 청소년합창단이 출연, 합창을 통해 독도의 의미를 함께 되새긴다.

참가단체

- 신아송파아티(지휘/강미순)
- 산유화어린이민요합창단(단장/최윤영)
-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권영기)
- 수정꿈드림합창단(지휘/임실혜)
- 부산KBS어린이합창단(지휘/김태호)
- 정관소녀소녀합창단(지휘/차윤희)
- 부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주곤)
- 동래초등학교 옥새미합창단(지휘/김희정)
- 부산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철수)
- 부산사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박희정)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건륜)
- 연합합창 지휘/이건륜(수석지휘자)
- 특별출연/해군작전사 군악대

**KSH ART ACCADEMIA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듣는 오페라 콘서트**

일 시 |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미취학아동 관람불가)
문 의 | KSHART ACCADEMIA
010-8610-0859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20세기 정통 바리톤으로 인정받았던 바리톤 손동철과 매력적인 음색의 테너 김상진을 초청해 마련하는 '합창으로 듣는 오페라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바리톤 손동철, 테너 김상진 외에도 국립오페라단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 제작에 참여한 홍지혜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소프라노 노이름, 장은영, 김나영, 엄남이,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손혜은이 들려주는 환상적인 여성 앙상블과 어린 이합창단 '뮤&오 라가씨', CCN합창단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걸작 '카르멘', '가면무도회', '리갈레토' 등의 유명 아리아를 앙상블과 합창으로 들려준다.



강민정 해금독주회 '찰(擦), 나'

일 시 |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강민정 010-8991-4148



국립국악중 · 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해금아쟁연주단 '해이연(奚牙淵)' 단원, 국악실내악단 '민들레'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예악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해금연주자 강민정의 무대.

제12회 울산광역시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기악부문 은상(국립국악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는 강민정은 그동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33회 청소년 협연의 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4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인 2색전-공감',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해이연의 산조나들이 산조산책'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해설/강민정
- 가야금, 양금/조영아
- 타악/박재현
- 베이스/황대웅
- 피리, 생황/지영재
- 기타/김경모
- 피아노/강메라

김현임의 춤

일 시 |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현임무용아카데미 010-4546-1545



동아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김현임 무용아카데미 원장, 김진홍전통춤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춤꾼 김현임의 무대.

국립발레단 단원, 부산시립무용단 수석단원을 역임한 김현임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게임 개·폐회식 조연출을 맡은 바 있으며, 2002년 대구국제제에서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현임은 그동안 서울과 부산, 울산에서의 개인출판을 비롯해 일본 동경·시모노세키·후쿠오카·대마도 공연,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초청공연, 중국 북경·천진·상해 초청공연, 김진홍 춤 공연, 6개 광역시 무용교류전, '짓' 무용단 이탈리아 순회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입춤, 한량무, 지전춤, 산조, 살풀이춤, 북춤, 승무

**전문예술법인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콘서트
가을과 멘델스존**

일 시 |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20만원, R석 10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단무장 공철무 010-3074-0366



사회적, 지역적 소외계층 출신의 재능있는 연주자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창단된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5번째 정기연주회.

도이치 오페 베를린 투어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베를린 심포니오케스트라 투어 지휘자, 프로코피예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종신 외국인 지휘자, 러시아 크리미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종신 외국인 상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박성민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첼리스트 김수연, 바이올리니스트 고소현의 협연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미단조 하이든/첼로 협주곡 제2번 라장조 멘델스존/교향곡 제4번 '이탈리아'

창작극 '담살이 의병장 안규홍'

일 시 |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보성군 문화관광과 061-850-5202



구한말 유생들과 함께 보성, 화순, 광양 등 호남 지역의 의병항쟁을 이끈 의병장 안규홍의 의로운 뜻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창작극 '담살이 의병장 안규홍'.

문병란 시인의 서사시 '동소산의 머슴새'로도 알려진 의병장 안규홍은

1879년 조선 중기 학자이자 임진왜란 의병장이었던 문강공 안방준 선생의 10대손으로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피며 20년 동안 머슴을 살아 '담살이 의병장'이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항일운동으로 1910년 6월 22일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창작극 '담살이 의병장 안규홍'은 안규홍 의병장의 고향인 보성군이 안규홍 의병장의 위대한 뜻을 기리고, 지역의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창작집단 상상두목과 함께 제작한 창작극으로, 지난 4월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 벌교, 부산 등 전국 투어무대를 가져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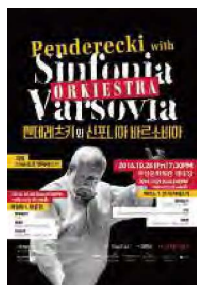
• 제작, 연출/최치연(극단 창작집단 상상두목 대표)

펜데레츠키와 신포니아 바르소비아

일 시 |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3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3만원

문 의 | OPUS 1544-5142



초대지휘자를 지낸 예후디 메뉴인이 '생애 최고의 오케스트라'라고 극찬한 신포니아 바르소비아의 첫 내한공연.

지난 1984년 폴란드로 건너온 예후디 메뉴인이 당시 폴란드 챔버오케스트라의 규모를 늘여 출범시킨 신포니아 바르소비아는 이후 클라우디오 아바도, 발레리 게르기예프, 로린 마젤, 마그 민코프스키, 그레고리 노박 등 거장들의 지휘 아래 유리 바슈메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고티에 카푸송, 장영주, 정경화, 가든 크레머, 안네 소피 무터, 로스트로포비치, 막스 벤게로프 등 명 연주자들이 함께하며 유럽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1997년부터 신포니아 바르소비아의 음악감독으로 있다 2003년부터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현존하는 최고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크쉬슈토프 펜데레츠키가 직접 지휘를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삶과 죽음, 선과 악, 고통과 죄의식, 원죄와 구원 사이의 경계 등의 주제로 많은 작품을 써온 펜데레츠키는 작곡가로서 뿐 아니라 그동안 빈필하모닉오케스트라, 베를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로얄콘서트헤바우 등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음악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고드는 지휘로 이미 세계 최고 지휘자의 반열에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캐나다의 피아니스트 안 리시에츠키는 그동안 다수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그랑프리를 휩쓸면서 따라붙었던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벗어버리고 성숙한 연주가로 거듭나면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프로그램

펜데레츠키/현을 위한 신포니아에타
쇼팽/피아노협주곡 제1번 마단조 작품 11
베토벤/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

- 지휘/크쉬슈토프 펜데레츠키
- 피아노/안 리시에츠키

남구오륙도구립여성합창단 2016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남구오륙도구립여성합창단
010-9386-9527

지난 1970년 7월 남구어머니합창단으로 창단한 후 2013년 8월 남구구립여성합창단으로 재창단한 남구오륙도구립여성합창단 2016 정기연주회.

남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그동안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쳐온 남구오륙도구립여성합창단은 2007 부산국제합창제 동상, 2011 전국새마을합창제 동상, 2011 창원전국그랑프리합창제 특별상, 2013, 2014 부산어머니합창페스티벌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과 민요, 가요, 영화주제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고영호(부산예술대학 실용음악과 교수)
- 반주/최여진



안다운, 김규년의 새로운 출발 '디에이드' 그들의 첫 걸음 'Reborn'

일 시 |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만 5천원

문 의 | 에이드뮤직 070-4327-2570



드라마 '연애의 발견' 수록곡 '묘해 너와', '너무 보고싶어', 드라마 '상류사회' 수록곡 '그러지마요' 등 여러 곡의 드라마 OST로 사랑받은 혼성 듀오 '어쿠스틱 콜라보'가 팀명을 '디에이드'를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마련하는 전국 투어콘서트 'Reborn'.

안다운, 김규년으로 구성된 '디에이드'는 지난 2010년 '러브 이즈 더 키로' 데뷔한 후 드라마 OST로 인기를 끌었으나 이전 소속사인 모그커뮤니케이션과 갈등을 빚어 오다 지난 7월 1인기획사 '에이드뮤직'을 설립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전주, 대구, 대전, 서울에 이어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디에이드'가 발표한 히트곡과 최근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신곡 '알았더라면'을 들려준다.

고신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오병이어 음악회

일 시 |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7:00 **중극장**

문 의 | 고신대학교 990-2222

'한국의 대표기독교 대학, 세계의 명품 기독교대학'을 지향하는 고신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오병이어 음악회'.

'오병이어' 기적처럼 지역사회에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2005년 미국 뉴욕 The Michael Sisco Opera Award 수상, 2010년 제3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강혜정, 이탈리아 '메리노 국제성악콩쿠르', 스페인 '차코모 아라갈 국제성악콩쿠르', 독일 '켈른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입상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베이스 함석현, 트윈폴리오, 세시봉 친구들의 가수 윤형주, 그리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객석을 사로잡는 삼손중창단이 출연, 10월의 마지막 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는다.



2016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BWPO의 거인

일 시 |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문 의 | BWPO 850-9566, 9568



지난 2009년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후 지역문화 예술발전과 문화의 저변확대에 앞장서온 부산월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BWPO)의

2016년 무대.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KNN방송교향악단 예술감독으로 있는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고 Korean Harp Festival 예술감독으로 있는 하피스트 곽정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대규모 편성의 웅장한 스케일과 화려한 선율의 사운드로 관객을 압도하는 말러의 교향곡 '거인'과 리체이 곡 'BWPO 아시아의 창' 서곡, 피에르네 '하프협주곡 작품 39'를 들려준다.

미국 인디애나음대 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세계화 프협회 '미래의 유망주' 최초 3회 연속으로 선정된 바 있는 하피스트 곽정은 주민 메타와 함께 이스라엘필

과 유럽, 이스라엘 순회공연을 가졌으며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제네바 챔버오케스트라, 프라하 방송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유라시안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곽정은 USA International Harp Competition 최연소 이사, (사)하피데이양상을 이사장 및 음악감독, 중앙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프로그램|

말러/교향곡 제1번 라장조 '거인'
리체이/BWPO 아시아의 창' 서곡
피에르네/하프협주곡 작품39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협연/곽정(하프)



최오성 타악독주회

四聲 II

일 시 |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오성 010-5102-9059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예술단 음악감독, 국악연주단 미토리 단원이자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8호 고분드리걸립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타악주자 최오성 독주회.

민속음악 중 타악을 통해 어른들에게는 유년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학생들에게는 책에서만 보던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우리 전통음악의 흥과 재미를 선사,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높고 낮은'의 '음고', '크고 작음'의 '세기', '길고 짧음'의 '장단', '맑고 탁함'의 '음색' 등 네 가지 소리(四聲)를 주제로 신명넘치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첫대소리와 북의 울림, 성주굿, 경기풍류, 판소리, 판굿과 북놀이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1일, 22일 공연 없음)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10월 8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거문고 가락을 잇다'



|프로그램|

살차용무(집박/채수만, 무용/강모세, 피리/진형준, 아쟁/권혜정, 장구/송강수, 거문고/이대하, 전혜정, 엄애리, 박하혜, 송다솔)

소리를 잇다(노래/정선희, 거문고/오상훈)

꿈속에서(작곡/김민석, 피아노/강메라, 거문고/전혜

정, 엄애리, 이유진, 송다솔)
아라리(작곡/김성겸, 거문고/이대하, 박하혜, 오상훈, 송다솔, 카훈/김진훈, 일렉기타/박현철, 피아노/강메라)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거문고/이대하, 전혜정, 강상호, 엄애리, 박하혜, 이유진, 오상훈, 송다솔, 장구/박재현)

- 지휘/이정필
- 해설/백규진

10월 15일 온누리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프로그램|

롯데시네마, 벨리니와 함께 19세기 전반 이탈리아 오페라의 3대 거성 중 한 사람인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도니제티의 전성기 작품으로, 그의 희극적인 재능을 충실히 발휘하면서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희극)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해설과 함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주요 이리아와 이중창을 들려준다.

- 해설/이종길
- 연출/이상미
- 출연/이지은(아디나), 황성학(네모리노), 고정현(벨고레), 김우영(자네타), 이준오(돌카미라, 병사)
- 피아노/안선애, 정은경

10월 29일 부산시립합창단 테너의 향연 -이탈리아의 슈베르트 'F.P.토스티의 명 가곡

|프로그램|

테너들의 여는 무대/Sogno(꿈), Ideale(이상)
테너들의 화려한 향연/Tristezza(슬픔), Addio(안녕히), La serenata(세레나데), Aprile(4월), L'ultima canzone(최후의 노래), Tormento(고독), Segreto(비밀), Chanson de l'adieu(이별의 노래), Marechiaro(마레키아레), Non tamo piu(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으리), L'alba separa dalla luce l'ombra(새벽은 빛으로부터)

황금빛 테너들의 화려한 무대/칸초네 연곡(김일권 곡)

- 지휘/전상철
- 피아노/이승운
- 출연/이재원, 권정은, 강은태, 박성환, 최춘식, 조성기, 김용태, 강종철, 최원갑, 김진영, 김추리

Music 음악

2016 을숙도 힐링콘서트

일 시 | 10월 4일(화)~7일(금)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전통 국악에서부터 퓨전 국악까지 흥겨운 우리소리로 일상에 지친 감성을 회복시켜주는 을숙도 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2016 을숙도 힐링콘서트.

4일 명인(名人) 박대성 '박대성류 아쟁산조'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6호 '박대성류 아쟁산조' 예능보유자인 명인 박대성의 무대.

|프로그램|

정선경, 이창희/공존(소아쟁/정선경, 피아노/이창희, 장구/장주영)

지원석/대아쟁 이중주 '청향'(대아쟁/장은교, 권다정) 아쟁합주 '민요'(아쟁/정형석, 진민진, 김애리, 장구/박현영)

박대성류 아쟁산조(아쟁/박대성, 장구/박현영)

5일 5인조 국악밴드 HearIM(헤어임)

황대웅(베이스), 김성겸(피리, 태평소, 작곡), 박현철(기타, 작곡), 김진훈(드럼), 정이혁(신디사이저) 등 5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국악밴드 HearIM(헤어임)의 무대.

6일 현(鉉)의 축제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와 일파기아금합주단 단장 장혜숙,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명일, 김해진, 부산기아금연주단 악장 최미란, 부산시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예능보유자 후보 이문희, 가야금솔리스트 JUL 동인 정효성 등 가야금연주자들이 펼치는 '현(鉉)의 축제'.

• 타악/송강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사회/김남순

7일 토크 콘서트 '허지영의 음악세상'

경기도립국악단 단원으로 있는 피리주자이자 생황주자인 허지영이 마련하는 토크 콘서트.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차 이수자이자 제1호 중요재례악 이수자인 허지영은 이번 무대에서 쉽게 무대에서는 접할 수 없는 생황연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현천수(피리/허지영, 생황/한지수)

수용음(생황/허지영, 단소/문은관, 무용/최은숙)

시조(생황/허지영, 해금/박정수, 여창/지미아)

허지영/개미(생황/이전우, 한지수) [초연] 등

• 해설/정은경

정주연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 10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현재 KNN방송교향악단 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정주연 독주회.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도미, 듀케인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매년 독주회를 가져오고 있는 정주연은 현재 브니엘국제에

슬중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이번 독주회에서는 플루트 독주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안준희, 첼리스트 최지현과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바흐/플루트와 건반을 위한 소나타 BWV 1031

에네스코/칸타빌레와 프레스토

홀멜/플루트와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작품 78

도플러/헝가리 전원 환상곡 작품 26 등

• 피아노/안준희 • 첼로/최지현

김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예술인 패스 소지자 균일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5일 김나영 바이올린 리사이틀



현재 경북도립교향악단 부수석, 실내악단 'The Quartet'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나영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재학시절 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나영은 졸업 후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 피아노/맹주관

12일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플러스 콘서트 인 부산'

부산의 특색을 4가지 컬러에 담아 '자연, 미래, 낭만, 열정'이라는 타이틀로 주옥같은 명곡들과 함께 아름다운 무대를 연출하는 '플러스 콘서트 인 부산'.

• 기획, 바이올린/김성민

• 춤/하연화

• 가야금, 작곡/최경철

• 하모니카/박기국

• 바리톤/임민철

• 클래식기타/고충진

• 피아노/김경미

• 피아노, 지휘/김재준

• 합창/무직범

• 해설/현재화

19일 THE E:UM 더 이:음 'Mozart와 함께하는 시간여행'

플루티스트 이현주, 성기업, 피아니스트 이윤정, 윤지영,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바이올리니스트 조은비, 비올리스트 김가민, 첼리스트 김나래가 들려주는 모차르트 음악의 밤.

26일 이야기가 있는 김선영 피아노 독주회 '가을의 노래'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 프랑스로 유학, 세르지 퐁두아즈 국립음악원 피아노과와 실내악과 디플로마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피아노 연주과 학사,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조기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선영 독주회.

김선영은 프랑스 아마하 콩쿠르 만장일치 우승, 프랑스 문화성 파리 음악 콩쿠르 1등, 프랑스 CMF 루앙 피아노 콩쿠르 1등, 오스트리아 요제프 디히러 콩쿠르 1등 없는 공동 2위 입상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시작했다.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우수신예 초청연주회

청소년 협주곡 '아름다운 飛上'

일 시 | 10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지난 2009년 창단 후 매년 50회 이상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오다 2013년부터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우수신예 초청연주회 '아름다운 비상'.

지역의 청소년 음악도들에게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김민규(부산예고 3년, 바이올린), 현채윤(부산예고 2년, 바이올린), 박신영(부산예고 2년, 바이올린), 백수경(부산예고 2년, 비순), 이승민(부산예고 2년, 플루트), 김민준(부산예고 2년, 피아노) 등 6명이 출연,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 예술감독 및 지휘/홍성택

제3회 인터네셔널 플루트콰이어 정기연주회 가을동화

일 시 | 10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인터네셔널 플루트 콰이어
010-2557-6643

부산의 젊은 플루티스트들로 결성된 인터네셔널 플루트 콰이어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참신하면서도 실험적인 연주로 관객에게 가깝게 다가 가고 있는 인터네셔널 플루트 콰이어는 이번 무대에서 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플루트 앙상블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Doris Geller(편곡)/4대의 플루트를 위한 4개의 레그타임
-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제2번 K.314 라장조
- 리처드 로저스(편곡 강석현)/시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
- Z. 어브레이우/플루트 사중주를 위한 Tico-tico no Fuba
- 강석현(편곡)/스튜디오 지브리 메들리
- 지휘/정승찬(음악감독)
- 협연/박소정(소프라노), 전유정(플루트)
- 연주/한유주(리더), 부지윤, 남유빈, 신지혜, 이승은, 정주영, 서하영, 이혜원, 엄도경, 김지선, 신현아, 홍하영, 이용현, 정혜인, 전주희, 이슬 외

2016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 라보엠

일 시 | 10월 6일 목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50% 할인)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 동래문화회관이 상주단체 오페라단인 드림문화예술과 함께 마련하는 2016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 마지막 무대 '라보엠'.
- 7월 '토스카', 8월 '나비 부인'에 이어 세 번째로 무대에 올리는 '라보엠'은 푸치니의 3대 걸작 오페라로, 파리의 뒷골목 다락방에 살고 있는 시인 루돌포, 철학자 코르리네, 음악가 쇼나르 등 보헤미안 기질을 가진 4명의 방랑생활과 우정, 그리고 폐결핵을 앓는 소녀 미미와 루돌포의 슬픈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 지휘/정금련
- 소프라노/박현정, 왕기현
- 테너/장진규
- 베이스/박상진
- 연주/드림문화오페라 오케스트라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크로노스 앙상블 실내악의 밤

일 시 | 10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_busan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이장호, 조양희, 박소영, 박영주로 구성된 현악4중주 크로노스 앙상블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지난 2002년 창단 이후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 잡은 크로노스앙상블은 그동안 바로크와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 연주/이장호(바이올린), 조양희(바이올린), 박소영(비올라), 박영주(첼로)
- 협연/류재환(오보에),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단원, 김미영(오보에, KNN방송교향악단 단원)



아카펠라 그룹 '보이처' 가족 하모니 콘서트

일 시 | 10월 8일 토요일 오후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동래문화회관이 '동래음성역사축제' 기간에 맞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마련한 아카펠라 그룹 '보이처'의 '가족 하모니 콘서트'. 약기 대신 목소리만으로 표현하는 아카펠라와 대중적이면서도 친근한 음악들을 결합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번 무대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가족 간의 관계와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힐링콘서트로, 시각장애인 가수 스티비 원다가 첫 딸을 만난 감동을 노래한 'Isn't she Lovely'를 비롯 카펜터스 메들리, 장미, 만화주제가 메들리, CM송 메들리, 트로트 메들리, 아리랑, 국민체조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으로 꾸며진다.



제11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아름다운 부산을 노래하다

일 시 | 10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한국창작가곡협회 323-8575,
010-5541-8576

-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가곡을 보급하기 위해 뜻을 함께한 시인, 작곡가, 성악가들로 결성된 한국창작가곡 협회가 들려주는 제11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이번 무대에서는 제1부 그리운 추억, 제2부 애절한 사랑, 제3부 내일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독창, 여성합창, 남성합창, 혼성합창 등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 화창/김성덕
- 출연/윤은서, 소프라노 박미애, 테너 장진규, 피아노 박운정, 피아노 중창단(지휘/윤상훈), 카메라타여성중창단, 카메라타합창단(지휘/권영옥), 단비울남성앙상블(지휘/강성철)
- 작곡/강영화, 김성덕, 김성희, 김수정, 김수진, 김정란, 노순덕, 심순보, 우덕상, 육수근, 이강산, 이성훈, 이승민, 이옥영, 이주애, 전세용, 정해욱, 홍수정, 허연숙
- 작사/김무영, 김정순, 김순자, 김춘남, 김지은, 박미정, 류정희, 박병규, 선용, 안덕자, 이소애, 오지영, 장현선, 정원식, 조운주, 이애리, 최복자, 정재분, 현애자, 황미숙, 황예순

서주연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 10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서정적인 깊은 음색과 탁월한 곡 해석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서주연 독주회.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 도독,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대학 전문연주자과정 및 동대학원 마스터 과정을 만점으로 졸업한

서주연은 지난해 10월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귀국독주회를 가졌으며 현재 대전을 대표하는 실내악단 챔버 플레이어스21 단원, 유벨튼 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중이다.

서주연은 현재 나시렛대학교, 대전시민대학교, 대전 예술의전당 영재아카데미, 대전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제28번
- 피아졸라/망각
- 피아졸라/나이트클럽 1960 등
- 피아노/이태경

**제52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듀오 콘서트**
일 시 | 10월 10일-11일 월-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3165-1219,
010-5596-8600
...



매년 두 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피아노 듀오 음악의 진수를 선보여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는 이번 무대에서 첫날인 10일은 생상, 쇼스타코비치, 장 프랑세, 파브스트, 비제, 미요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듀오곡을, 11일에는 볼랑, 드뷔시, 비제, 포레, 사브리예, 라벨 등 프랑스 작곡가의 듀오곡으로 꾸며진다.

10일 듀오연주회
• 연주/임현지&김경진, 김군나&윤희경, 이진성&김영지, 김주리&고영주, 육은화&송지은, 최지은&서혜리
11일 프랑스 음악의 밤
• 연주/이현욱&표세구, 김문경&김은정, 한상민&최은영, 김성숙&안준희, 황인교&김영실, 김민정&최정은

**아트뱅크코리아 기획공연 |
슈만 서거 160주년 기념 '슈만의 애상'**
일 시 | 10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슈만 서거 160주년을 맞아 아트뱅크코리아가 마련한 기획공연,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지성호, 울산대학교 오윤복 교수, 동아대학교 박정희 교수와 각 귀국한 신인 색소폰리스트 우다연과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인연주자들이 출연, 슈만의 주옥같은 실내악 명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박정희, 오윤복
- 바이올린/조무중, 지성호, 박주연, 손은혜
- 비올라/김민경 • 첼로/오현진, 정준수
- 색소폰/우다연 • 해설/곽근수



**전은지의 프로젝트 앙상블
Flute'z 제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H&Music co 010-5327-6025
...



오스트리아 Burgenland 주립음대 최고연주자와 정과 악기교육학과를 수석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신라대학교, 부산 예술 중·고등학교 외래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플루티스트 전은지를 리더로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서영희, 동의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민, 교문오케스트라 지도강사, 앙상블 The Blossom 멤버로 있는 첼리스트 김나래, 플레이어즈 백 전속 피아노연주자, 송니움앙상블 리더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해경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앙상블 Flute'z의 무대. 아름다운 플루트 선율과 현악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실내악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區(구) 문화회관 순회연주]**
일 시 | 10월 12일(수), 19일(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

지역 문화회관 활성화와 평소 부산문화회관을 찾지 못한 지역민들을 위해 부산시립합창단이 마련하는 區 문화회관 순회연주.

10월 12일에는 부산시립합창단 테너 파트 단원들이 이탈리아의 슈베르트라 불리는 토스티의 가곡을, 19일에는 소프라노, 앨토 파트 단원들이 슈만과 슈트라우스의 독일가곡을 들려준다.

12일 이탈리아의 슈베르트 'F.P. 토스티'의 명 가곡
• 출연/테너 최춘식(수석), 김진영(부수석), 강종철, 박성환, 김주리, 조성기, 권정은, 김용태, 강은태, 이재원, 최원갑(비상임단원)

• 해설/오동주(부산시립합창단 기획)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19일 R. 슈만과 R. 슈트라우스의 독일 가곡의 밤
• 출연/소프라노 이정란(수석), 엄남이(부수석), 홍승현, 최선희, 이정희, 남순천, 김나영, 양은제, 권순유, 이해진, 앨토 정은영(수석), 손미숙, 박성혜, 김미경, 안소영, 장은경

• 해설/전진(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제5회 을숙도 창작음악축제
일 시 | 10월 12일(수)-15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

문화와 예술발전의 기반이 되는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예술가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5회 을숙도 창작음악축제.

12일 작곡모임 잉태 '함창&가곡' 세 남자의 합창 이야기
• 작곡/구영립, 권오철, 김인철, 문지은, 박미선, 박주희, 백승태, 송필석, 최석태, 홍기영
• 지휘/김재준 • 피아노/류인영

• 함창/JEM합창단

13일 향천회 목관 4중주 'Wind Quartet'
• 작곡/곽선혜, 박경규, 박주희, 백승태, 임지훈, 정원상, 진소영, 최석태, 한정훈

14일 한국작곡가회 '실내악'
• 작곡/김수정, 박이제, 박지영, 이한나, 장경숙, 정덕기, 정부기, 태미

• 클라리넷/유지훈 • 바이올린/이재경

• 피아노/진승민, 엄은경

15일 부산영상음악협회
• 작곡/김유정, 백은숙, 양성남, 유종호, 인병오, 최호선

제34회 부산관악축제
일 시 |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3:30, 6: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문의 | 부산관악협회 010-6505-5689
...

부산지역 20개 관악단이 한 자리에 모여 부드러운 선율과 웅장한 하모니를 들려줄 부산의 대표적인 관악축제 제34회 부산관악축제. 지난 1974년 한 국관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주관으로 처음 시작된 부산관악축제는 매년 부산지역 고등학교 관악단들이 참가하면서 실력있는 관악 음악도들을 배출해왔다.

오후 3:30 출연팀
동명초등학교 관악단, 정원초등학교 관악단, 양산중부초등학교 관악단, 부산녹산중학교 관악단, 양산서창중학교 관악단, 동의공업고등학교 관악단, 대왕전자통신고등학교 관악단, 부산애원고등학교 관악단,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관악단, 경성대학교 관악단

오후 6:30 출연팀
부산색소폰과이어, 부산해원학교 관악단, 부산항남물류고등학교 관악단, 아유름색소폰앙상블, 경남공업고등학교 관악단,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관악단, 부산공업고등학교 관악단, 부산블린티어윈드앙상블,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부산관악협회 관악단



김동욱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이자 부산챔버뮤직 소사이어티 리더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독주회.

27살의 나이로 한국 오케스트라 악장 중 최연소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에 임명되어 2013년

까지 악장으로 활동해온 김동욱은 지난 2007년 부산 챔버소뮤직사이어티를 결성하여 이듬해 부산산국제음악제의 정규멤버로 제임스 비즈웰, 마스코 유소다, 예루살렘 코르넬, 보로메오 코르넬 등과 실내악 공연을 가져왔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봄'
브람스/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툰'
라벨/차간느

- 피아노/에르노 페히어(부산대학교 교수)

피아니스트 서혜리 독주회

Romantic Fantasies

일 시 |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유예술키획 010-9025-2012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 미국 신시내티 주립대학교에서 최고연주자과정과 박사학위를 마친 피아니스트 서혜리 독주회.

그동안 오스트리아, 미국, 중국 베이징, 칭다오, 홍콩 등 초청연주회를 가져온 서혜리는 현재 서울과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아대학교 강의를 겸직하고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로맨틱 판타지'라는 부제로 낭만시대의 주요 작곡가 멘델스존, 슈베르트, 그리고 슈만의 환상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멘델스존/판타지 작품 28 'Scottish Sonata'
슈베르트/판타지 다장조 작품 15 D.760 '방랑자'
슈만/판타지 다장조 작품 17

한국가곡연구회 제2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우리아트 920-9545

...



우리의 정서가 담긴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연구,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한국가곡연구회의 제21회 정기연주회.

우리 귀에 친숙한 한국가곡과 아름다운 시에 곡을 붙인 창작곡 등 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코스모스를 노래함(이흥렬 곡), 풍년타령(조두남 곡), 내마음(김동진 곡), 금빛날개(이안산 곡), 가을 저녁(염영미 곡), 세월이 가면(김형주 곡) 등

- 소프라노/김현숙, 정서영, 구민영
- 메조소프라노/손자경, 손혜은
- 테너/김동윤
- 바리톤/함도관, 심정보
- 베이스바리톤/양재원
- 피아노/최진현, 진승민

화산 백현경 '현의 몸짓' 전국 투어

일 시 |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의 | 아이온 예술공연 010-2626-2789

...



장르의 벽을 넘어 예술적 깊음과 화려한 대중성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현경이 솔로앨범 발매를 기념해 마련한 전국투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전문예술단체 아이온 예술공연 대표 겸 예술감독, 국립창원대학 외래

교수로 있는 백현경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영역인 클래식계의 즉흥연주 바이올리니스트로 끊임없는 예술적 열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백현경이 직접 작곡한 독특한 한국적 색채의 바이올린 솔로곡 '현', '몸짓', '밀양아리랑'을 테마로 한 '날 좀 보소'와 '쓰리랑', 앨범 타이틀곡 '엄마야 누나야'와 '아리랑' 등 우리에게 친숙한 선율의 곡들과 피고이네르바이젠, 타이스의 명상곡 등 바이올린 명곡들을 들려준다.

- 더블베이스/오정택
- 피아노/구형준
- 드럼/김윤태
- 아코디언/정태호
- 판소리/유성실

독일가곡연구회 제49회 정기연주회 가을밤에 듣는 독일 오페라 이야기

일 시 |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독일가곡연구회 010-2692-6856

...



지난 1987년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나라에서 유학한 음악인들로 창단한 독일가곡연구회의 49번째 정기연주회.

독일가곡연구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통해 독일가곡을 보급하고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버 오페라 '마탄의 사수', 레하르 오페라 '미소의 나라', '유쾌한 미망인', 모차르트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마술피리' 등 독일 오페라, 오페레타의 아리아와 듀엣, 피아노 듀오로 꾸며진다.

- 소프라노/강소영, 김현주, 박나리, 설은경, 양근화, 윤선기, 장은영
- 테너/김기형, 이은민, 임성규, 조윤환
- 바리톤/김중화
- 클라비어/김경미, 감성희, 박미은, 박필은, 성민주, 이화영선, 임효진

2016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제2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서민숙 010-6770-3632

...

지난 1989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리코더 연주, 청소년 리코더 합주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리코더 음악의 자변 확대에 힘써온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정기연주회.

음악적 감성이 메말라 있는 어린이들에게 리코더 연주를 들려주고, 같이 연주하면서 인성 교육에도 한 발짝 다가가려는 연주자들의 순수함과 열정을 만나 볼 수 있는 무대로, 바로크와 고전음악 중 리코더만의 매력을 잘 펼칠 수 있는 다채로운 연주곡을 들려준다.

특히 바로크시대의 대표적인 건반악기인 쳄발로를 전공한 지휘자 김희경이 객원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카운터테너 이상준, 류티스트 고종대의 특별한 무대도 만날 수 있다.

- 음악감독/이창욱
- 회장/서민숙
- 객원지휘/김희경
- 특별출연/카운터테너 이상준, 류티스트 고종대

꿈을 찾아가는 감성콘서트 윤효간의 피아노와 이빨

일 시 |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지난 12년간 1,600여 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변치않는 감동의 무대를 전해온 피아니스트 윤효간 콘서트 '피아노와 이빨'.

팝과 클래식, 동요,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와 영상, 진솔한 이야기가 혼합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피아노와 이빨'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자기만의 독특한 이력을 쌓으며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피아니스트 윤효간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가치와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며 다음의 가치가 주는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한 편곡으로 새로워진 '음악'들과 전세계 투어 무대를 담은 '영상'으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 용기를 전해준다.

조무종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드러운 속에 열정적인 테크닉을 구사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종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 학교를 거친 후 예술사, 전문사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오케스트라 솔로 최고 연주자과정, 에센플크방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 솔리스트, 실내악, 오케스트라 연주자로서 두루 전문성을 갖춘 조무종은 지난해 귀국 후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악장, Trio Place 멤버로 활동하며 학구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연주로 많은 호평을 받아왔다.

조무종은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의대 학교 예술교육영재원, 부산예고에 출강하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32번 바흐/파르티타 제2번 BWV 1004 중 '샤콘느' 이차이/바이올린 소나타 제4번 작품 27-4 등
• 피아노/천슬기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33회 정기연주회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의 밤 '라보엠&토스카'

일 시 |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2009년 7월 창단된 후 폭넓은 활동을 펼쳐오다 지난 2013년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어오고 있는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사실주의 오페라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꼽히는 푸치니의 오페라 아리아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토스카'의 주요 아리아를 1, 2부로 나누어 들려준다. 1부 '라보엠'에서는 소프라노 구민영(미미), 왕기현(무제타), 테너 홍지형(로돌포), 바리톤 안세범(마르첼로)이, 2부 '토스카'에서는 소프라노 김유진(토스카), 테너 김지호(카바르도시), 바리톤 윤오건(스카르피아)이 관객과 만난다.

• 예술감독 및 지휘/홍성택

제55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Mendelssohn

일 시 |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10월 무대.

지휘자 윤상운이 지휘하는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현재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김선영의 연주로 전옥용의 창작곡 '오케스트라를 위한 Fragment'를 비롯해 낭랑한 선율과 화려한 기교로 대표적인 첼로 협주곡으로 꼽히는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나단조', 베토벤 교향곡 못지않은 강렬한 에너지가 지닌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5번' 등 깊어가는 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연주곡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김원명
- 지휘/윤상운
- 협연/첼리스트 김선영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국립합창단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콘서트

일 시 |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한국 최고의 프로합창단이자 세계 최고의 전문합창단인 국립합창단을 초청, 합창음악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국립합창단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콘서트.

지난 1974년 7월 창단한 국립합창단은 그동안 연 4회 정기연주회와 지역순회연주회, 국립오페라단 정기공연 합창출연과 특별연주회를 가져오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는 합창, 무용, 연극 등을 종합한 음악극 형태의 창작가극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구천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너영나영, 아리랑, 못잊어, 새남도아리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합창 하모니의 진수를 들려준다.



제45회 부산작곡가협회 창작곡 발표회 Busan Pantasie '관현악과 합창의 밤'

일 시 |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5: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회장 전세용 010-6576-5939

지난 1983년 창립 후 그동안 44회의 창작곡 발표회를 비롯해 7권의 창작곡집 출판, 음반 출판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부산작곡가협회의 창작곡 발표회. 'Busan Pantasie-관현악과 합창의 밤'이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을 소재로 작곡한 협주곡, 합창곡 등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강영화/아름다운 인연
김성광/Korea Autumn of Sympony
김성희/우슬초
김수정/영원하라 부산
김수진/해운대 문텐로드
이승임/부산! 아름다운 이곳은...
이주애/부산! 부산! 부산!
전세용/태종대 자갈밭
정혜욱/Segu11-Over looking Busan
조희주/피아노 협주곡 '절경 품은 부산항대교와 광안대교'
태미/광안리 불꽃되어
• 연주/뉴프라이모오케스트라(지휘/임준오), TOV합창단(지휘/이일경)

S. Modern 타악양상블 정기연주회 버스킹과 전통타악의 만남

일 시 |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S. Modern 타악양상블
010-3376-2246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부수석, 톤인프리 오케스트라 이사, 부산원드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중인 타악연주자 송희철을 음악감독으로, 타악기의 다 이내막하고 역동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S. Modern 타악양상블 정기연주회.

지난 2010년 창단 이후 다양한 무대에 서온 S. Modern 타악양상블은 알기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한편, 기존의 연주되지 않은 연주 프로그램을 개발, 타악 문화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OST를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곡으로 다채로운 타악의 세계를 선사한다.



제42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노 페스티벌

일 시 | 10월 24일-25일 월-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010-4011-0560

부산지역 피아니스트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의 42번째 정기연주회. 첫날에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둘째날에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회원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24일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출연/전숙영&김유진, 정이연, 김영실&심정자, 조혜영, 김은정, 서주옥&조은주&박정란, 강성은

25일 8인 페스티벌
출연/서숙지&이미라&이정아&이정현&민숙&한은아&박미숙&김영숙, 정은정&임성아&최정윤&배수영&이진성&장소은&조혜영&신정윤, 김무근&장근미&박선미&강지영&박희정&이문숙&손란&정희정, 정광민&공찬이&변경선&윤민영&정년경&이경옥&박환희&조상한, 김문경&김영실&노은주&박은정&임현지&서혜원&심정자&표세구, 최지은&김유미&허원빈&최정아&이은지&신주옥&김조은&조혜리, 황정미&강남길&최혜련&양정은&김병기&김진희&송지은&강성은, 신애정&이유정&박선재&박윤정&성민주&이아영&장진이&정경아

아트뱅크코리아 기획공연 II 아렌스키 서거 110주년 기념 아렌스키의 애상

일 시 |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지난해 순수한 음악에의 열정과 풍부한 기량으로 관객들에게 피아노 트리오의 세계와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자 결성된 피아노 트리오 Trio Place와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오근영, 비올리스트 김민경, 첼리스트 서성은, 피아니스트 신영주가 아렌스키의 대표적인 실내악곡을 들려준다.

- 연주/Trio Place(바이올린 조무중, 첼로 오현진, 피아노 박정희), 서은아(바이올린), 오근영(바이올린), 김민경(비올라), 서성은(첼로), 신영주(피아노)
- 해설/곽근수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세상의 모든 발라드를 만나다

일 시 |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3



우리에게 친숙한 발라드 작곡가들의 숨겨진 사랑 이야기를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렉처콘서트로 만나는 금정문화회관 브런치 콘서트 10월 무대.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라흐마니노프, 드뷔시, 브람스, 쇼팽 등 아름다운 연인에게 영감을 받아 탄생한 로맨틱한 곡들을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는 비올리스트 김상진, 오보이스트 김소연, 피아니스트 앙리 보나미의 연주로 들려준다.

-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보칼리제 작품 34-14
드뷔시/아름다운 저녁
브람스/발라드 사단조 작품 118 제3번
쇼팽/발라드 제1번 내림사단조 작품 23
• 해설/비올리스트 김상진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20회 프롬나드 콘서트 실내악으로의 초대 2

일 시 |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3



9월부터 시작한 '실내악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 부수석 손은혜, 비올리스트 김상철, 첼리스트 강진희, 클라리네티스트 조정현이 출연해 모차르트, 하이든의 클래식명곡을 실내악 앙상블로 들려준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바장조 작품138
하이든/현악4중주 Eb장조 작품33 제2번 '농담'
모차르트/현악4중주 B장조 작품458 '사냥' 등
- 예술감독/오충근
 - 연주/황지원(악장, 제1바이올린), 손은혜(부수석, 제2바이올), 김상철(비올라), 강진희(첼로), 조정현(클라리넷)

MIOT 제19회 정기연주회 2016 우리시대음악 '공존과 선택 (Coexistence and Eclecticism) IV'

일 시 |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강순희 701-1584, 010-6566-1584

지난 1997년 작곡가 강순희를 주축으로 현대음악을 연구하고 알려진 MIOT(Music in Our Time · 우리시대음악)의 19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02년부터 '대립, 공존, 선택'이라는 주제로 현, 관, 작곡편성의 특성에 따라 3회에 걸쳐 연속적인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던 MIOT는 이번 무대에서 다원론적 견지에서 '공존과 선택 또는 절충'에 중심을 두어 지구촌 작곡가들과 더불어 자유롭게 접근하고자 한다. 이 시대 음악의 지역적 확산을 통해 주류음악에 함유하게 된 한국 작곡가들과 우크라이나의 N. Kapustin, 에스토니아의 A. Pärt의 창작곡을 소개한다.



제1184회 MBC 목요일음악회 트리오 피아체 'Special & Unique'

일 시 |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문화도시 네트워크 760-1494



2015년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첼리스트 오현진, 피아니스트 박정희로 구성된 트리오 피아체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제 1184회 MBC 목요일음악회, 순수한 음악에의 열정과 풍부한 기량으로 관객들에게 피아노 트리오의 세계와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자 결성된 트리오 피아체는 그동안 오세너스 아트홀 초청연주회, 동남권원자력악원 초청 희망의 음악회, 대구가톨릭대학교 초청 레저콘서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 시리즈, 슈만 서거 160주년, 아렌스키 서거 110주년 기념 초청음악회 등을 통해 학구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연주로 관객들과 만나오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펠/피아노 트리오 제1번 내림마장조 작품 1 제1번 아렌스키/피아노 트리오 제1번 라단조 작품 32

모질브라스 첫 내한공연

일 시 |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지상 최고의 브라스 앙상블 '모질브라스' 첫 내한 공연. 영국 '가디언' 지로부터 '모차르트 이후 가장 위대한 오스트리아 음악가'라는 극찬을 받은 모질브라스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합창대 동문들로 구성된 금관7중주팀으로,

클래식에서부터 뮤지컬,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금관 음색만큼이나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여 왔다. 모질브라스는 흥겨운 퍼포먼스와 뮤지컬 같은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 캐나다, 호주, 러시아, 중국, 대만, 일본 등 전 세계를 무대로 연간 120회가 넘는 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악기 가을을 노래하다 with 한동준

일 시 |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국내 최초 서양악기를 전공하고 한국음악학 박사 학위를 받은 클래식 기타리스트 권정구를 중심으로 바이올린, 기타, 아쟁, 피리, 생황 등 전통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권정구 앙상블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 '우리악기 가을을 노래하다'

with 한동준. 감미로운 발라드 곡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가수 한동준과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기타와 아쟁, 기타와 피리, 기타와 생황 등 우리악기와 클래식 기타가 만나 가을의 서정을 들려준다.
• 연주/권정구(클래식기타), 김효영(피리, 생황), 서수복(타악), 윤소라(아쟁), 김정수(바이올린)
• 특별출연/한동준(가수)

아너스 플루트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일 시 |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너스 플루트 오케스트라 010-3858-1770

플루티스트 정옥경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아너스 플루트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올해 1월 창단한 아너스 플루트 오케스트라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기연주회는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을 통해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플루트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알려나갈 예정이다.

• 지휘/백상홍



여주현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여주현 010-6438-2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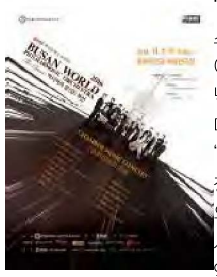
연세대학교와 미국 메니스음대 석사 및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BS오페스앙상블 멤버, 월드브릿지오케스트라 수석단원, 비르투오조 멤버, 부산필하모니아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여주현 독주회.

연세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기도 한 여주현은 그동안 연세대학교 오케스트라, 부산시포니에타,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부산필하모니아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에 서왔으며,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 브니엘예술중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프로그램]
바르톡/랩소디 제1번
모스콥스키/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베토펠/바이올린 소나타 제9번 '크로이처'

2016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실내악으로의 초대

일 시 | 11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3층 1만원
문의 | BWPO 850-9568



'문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올해부터 마련하는 실내악의 향연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실내악으로의 초대.'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악장 웨인 린을 비롯해 KNN방송교향악단 악장 양경아, 대만 타이난국립예술대 학장 바이올리니스트 린 후이춘 등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을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의 비르투오소들이 아름다운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 바이올린/웨인 린, 양경아, 린 후이춘
- 비올라/대일 김, 박예은 • 첼로/이예성, 우양 휘루
- 더블베이스/김진철 • 하프/리체이
- 플루트/라채원 • 오보에/이미성
- 클라리넷/오코카와 세이지
- 비슨/최영진 • 호른/최경일

일파가야금합주단 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 絃의 祝祭 '가야금과 마두금 · 마술의 향연'

일 시 | 11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일파가야금합주단 582-9119



지난 1996년 4월 창단된 후 부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레퍼토리 개발과 이해하기 쉬운 연주로 대중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일파가야금합주단 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

지난 2010년 10월 부산광역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일파가야금합주단은 현재 장혜숙 단장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가야금 연주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현의 축제' 여섯 번째 무대로, 몽골 울란바토르시립악단 단원이자 'Ikhsar mongol' 전통음악팀 단원인 몽골의 유명 마두금 연주자 촛론파트 초카와 국내 마술의 대가 고재영 대구미래대학교 마술콘텐츠과 교수를 초청,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해설/장명화(동아세아 민족음악 교류회장)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토마스 슈츠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부산문화 1600-1803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대학 교수로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토마스 슈츠 독주회.

바흐,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의 탁월한 해석가로 널리 알려진 토마스 슈츠는 고전음악에서부터 동시대 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현대음악계를 이끌고 있다.

토마스 슈츠는 그동안 존 케이지, 모튼 펠드만, 크리스찬 울프, 프레드릭 쉘프스키, 얼 브라운, 조너단 하비, 나호신, 엘리엇 가터, 월터 짐머만, 보드윈 부킹스 등 수많은 작곡가들과 함께 작업하며 쉘프스키, 타카하시, 짐머만, 부킹스 등에게 피아노곡을 위촉, 초연무대를 갖기도 했다.

Play 연극

로맨틱 코미디극 '연애특강'

일 시 | 8월 13일(토)~10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아트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미니티켓 1600-1716



솔로에게는 간접적 연애 체험을, 커플에게는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로맨틱 코미디극 '연애특강'.

막이 오르면 한 강사가 연애기초학을 시작으로 연애특강에 들어간다. 특강의 예를 들자 대학 선후배 관계인 중호와 수민, 클럽에서 처음 만난 광웅과 리나 등 두 커플이 등장하고 강사는 이 두 커플을 통해 남녀의 연애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각 장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애의 에피소드를 통해 관객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공적인 연애를 위한 연애비법을 전수해준다.

콘서트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일 시 | 9월 9일(금)~2017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의 | 미니티켓 1600-1716



지난 2007년 드라마와 콘서트가 함께하는 이색 무대로 국내에서 뿐 아니라 미국, 호주 등 해외투어 공연을 통해 꾸준히 사랑받아온 콘서트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뒤편 참견해야 직성이 풀리는 수다쟁이와 지구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굳게 믿는 교만한 여자, 여기에 이 세상 걱정거리라고는 하나도 없어보이는 해맑은 여자와 극소심한 남자의 이상한 커플, 게다가 정체불명의 탈옥수까지, 평범한 커플에 우연히 모여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각양각색 인생 이야기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전하는 '우연히 행복해지다'는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노래로 관객들에게 따뜻한 행복을 전해준다.

초대형 블록버스터 로맨틱 판타지 달맞이 고개 : 달을 기다리는 연인

일 시 | 9월 23일(금)~11월 20일(일) 화~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6:00,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MBC 삼주아트홀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6만원

문의 | BAH 미디어 626-0300



해운대 달맞이고개를 스토리텔링한 이야기에 전통예술과 첨단 미디어아트를 결합시켜 부산지역 특화공연으로 탄생시킨 '달맞이 고개 : 달을 기다리는 연인'은 한없이 맑고 투명한 여자 바다(海)와 섬세하고 배려 깊은 남자 달(月), 거칠지만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강인한 남자 구름(雲), 지나친 질투로 세상을 뒤집고 마는 남자 태풍(颶)을 등장시켜 그들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그려낸다.

GOD 멤버인 가수 김태우와 뮤지컬 배우 손순호가 주인공인 '달' 역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는 이번 작품은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연출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판타지극에 어울리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연극 '러브 액츄얼리'

일 시 | 9월 23일(금)~2017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주)플레이더부산 1600-0316



솔로와 커플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 로맨틱 코미디극 '러브 액츄얼리'.

사랑에 대한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러브 액츄얼리'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연애 100일 커플에서 슬슬 권태기에 접어들며 사사건건 부딪히는 1,000일 커플, 연인이기 보다는 이제는 가족같은 10년 커플 등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연인 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준다.

특히 지난 1990년대 마로니에공원을 배경으로 그때를 추억할 수 있는 무대와 다양한 소품 외에도 19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노래가 관객들을 아련한 추억 속으로 이끈다.

• 작/이민혁
• 연출/이규인

생계형 코믹 서스펜스 '오백에삼십'

일 시 | 9월 29일(목)~11월 2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10/3일 오후 3:00, 6:00, 10/4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극판 '빨래'로 불리며 대학로를 평정한 연극 '오백에삼십'. 월세를 내지 못해 삶에 허덕이는 '허덕'과 억척스럽지만 속은 누구보다 여린 허덕의 부인 '효영', 알뜰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만년 사시준비생 '배변'은 평소 서로를 의지하지만 슈퍼 갑질을 일삼는 빌라 주인아줌마의 느닷없는 사망 소식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범인은 누구인지, 왜 그녀를 죽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지는데... 보중금 오백에 월세 삼십만원인 원룸텔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연극 '오백에 삼십'은 돈도 없고 뺨도 없는,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감동과 웃음으로 풀어낸다.

2016 신춘문예 당선작 연속공연 '우리동네 연극대장'

극단 여정 '감염 그리고, 잃어버린 계절'
일 시 | 10월 6일(목)~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극단 여정 010-5133-1220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사회적 이유들이 맞물려 생겨난 '인 가구' 현상을 그린 경상일보 당선작 이성호의 '감염'과 사산(死産)으로 아이를 잃은 아내와 파업 중인 남편을 주인공으로 그들이 겪는 상실과 아픔을 그린 부산일보 당선작 손상민의 '잃어버린 계절' 등 두 작품이 선보인다.
작품
 경상일보 당선작 '감염'(작/이성호, 연출/권혁진, 출연/구남용, 박명정, 양은미, 강정희)
 부산일보 당선작 '잃어버린 계절'(작/손상민, 연출/김태호, 출연/김상호, 이현욱, 안성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일 시 | 10월 8일 토요일 오후 3:00, 7:30
 9일 일요일 오후 2:00, 6:30
부산시민회관대극장
입장료 |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의 | ㈜윌드쇼마켓 1566-5490



오리지널 라이선스 뮤지컬 최초 국내 초연 20주년을 맞은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부산무대. 국내에서는 지난 1996년 초연 당시 7만여 명의 관객들이 관람해 화제를 모았으며 이듬해인 1997년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조연상, 기술상, 특별상, 1998년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조연상, 2013년 한국뮤지컬대상 앙상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송일국, 이종혁, 최정원, 김선경 등 국내 최정상 배우들이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는 이번 무대는 특히 20주년을 기념해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연출팀인 레지나 알그레를 영입, 정통 브로드웨이 쇼 뮤지컬의 진수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뮤지컬 '정글북'

일 시 | 10월 15일~16일 토-일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넌버벌포퍼먼스 '난타'의 프로듀서 송승환이 기획한 초대형 가족뮤지컬 '정글북'. 1907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키플링의 소설 '정글북'의 탄탄한 스토리에 뮤지컬 '그리스', '해를 품은 달'의 정대영 연출, 뮤지컬 '레베카', '그날들의 정도영 안무, 뮤지컬 '프리실라', '영웅'의 한정림 음악감독까지 최고의 제작진이 뭉친 뮤지컬 '정글북'은 위기에 빠진 정글을 지키는 모글리의 모험 이야기를 통해 동물과의 따뜻한 교감과 친구 간의 우정, 가족애를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특히 정글을 표현한 생생한 무대와 인체영상에서부터 곰, 효표범, 늑대, 호랑이, 원숭이 등 정글 속 동물들을 표현한 의상과 실감나는 안무, 그리고 감미로운 뮤지컬 넘버까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윤희석과 친구들의 뮤지컬 갈라쇼

일 시 |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뮤지컬 배우이자 영화, TV드라마, 방송은 물론 최근 가수로도 데뷔해 다양한 끼를 발휘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배우 윤희석과 그의 친구들이 펼치는 뮤지컬 갈라쇼. 뮤지컬 '그리스', '헤드윅', '광화문연가', '형제는 용감했다' 등 수많은 뮤지컬에서 주연배우로 활동해온 윤희석은 이번 무대에서 그가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희석밴드 '브로맨스 클럽'과 그의 후배로 구성된 뮤지컬팀 '에이원'과 함께 유명 뮤지컬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선보인다.
 •출연/윤희석(진행, 노래), 김성재(어쿠스틱기타, 코러스), 정용민(기타), 박달준(드럼, 퍼커션), 지신엽(건반), 서민석(베이스), 에이원(조은별, 이시유, 박시범, 박영필)

뮤지컬 '잭더리퍼'

일 시 |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29일 토요일 오후 3:00, 7:00, 30일 일요일 오후 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의 | ㈜밝은누리 1566-9621



미해결 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하려는 형사와 희대의 살인마 이야기를 치밀한 구성으로 풀어낸 뮤지컬 '잭더리퍼'. 체코 원작의 라이선스 작품이지만 줄거리, 노래, 무대 등 90% 이상 한국 정서에 맞게 재창된 '잭더리퍼'는 지난 2009년 한국 초연 이후 세 차례 앙코르 공연을 가졌으며, 2012년에는 일본으로 진출, 한국 뮤지컬 역사상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우며 원작 그대로가 아닌 한국에서 창작된 작품의 역수출이라는 새로운 해외진출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잭더리퍼'는 퍼즐 조각처럼 얽힌 살인마의 존재를 파헤쳐가는 스릴러 뮤지컬로, 2중 회전무대로 펼쳐지는 무대연출과 클래식하면서도 대중적인 뮤지컬 넘버, 화려한 무대기술로 관객을 압도한다.
 •연출/황용범 •음악감독/이성준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국악인형극 '덩덩콩따콩'

일 시 | 10월 2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36개월 이상 관람가능)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4



40여 년간 인형극 한 길만 걸어온 극단 '현대인형극회'의 국악인형극 '덩덩콩따콩'. 독자적 기술로 개발된 줄인형들이 동자뿐 아니라 표정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덩덩콩따콩'은 지난 2008년 초연무대를 가진 후 인형과 음악이 하나되는 미술같은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피리연주와 화려한 부채춤, 신명넘치는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국악과 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인형만이 가진 감성적 표현력과 어린이 시선에 맞춘 재미있는 드라마 구성으로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극단 사다리 '왜 왜 질문맨'

일 시 |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가능)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4



질문을 멈출 수 없는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과 이들의 질문에 답하기 난감했던 경험이 있는 어른들을 위한 무대 '왜 왜 질문맨'.

질문을 멈추지 않아 '질문맨'이라는 별명이 붙은 주인공이 수퍼히어로 질문맨으로 변신해 '왜'라는 소리가 들려오면 뭐든지 먹어치우는 괴물 바구를 물리치는 이야기로, 스스로 답을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질문이 지닌 즐거움과 중요성을 전달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캐릭터들과 초등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철교 퍼즐의 다양한 변형 등 짜임새 있는 무대연출로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Dance 무용

2016년 부산해월무용단 정기공연

일 시 |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해월무용단 010-5280-4514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를 역임하고 현재 월드엔젤피스 예술단 안무감독,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로 있는 홍기태가 이끄는 부산해월무용단의 2016년 정기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 춤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정, 중, 동'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춤...버선발로 즈려 밟고'를 비롯해 우리춤의 멋과 흥을 담은 전통무와 창작무를 선보인다.

- 안무, 구성/홍기태(부산해월무용단 단장 겸 예술감독)
- 특별출연/정혁준(서해대학교 초빙교수), 이상민, 박은혜, 김시현(부산시립무용단 단원)

부산예술회관 문화의 날
박헌주 Busan City Ballet Company
해설이 있는 발레공연

일 시 |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예술회관 631-1377

부산예술회관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상설무대.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구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매주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10월 무대에서는 박헌주 Busan City Ballet Company가 출연, 작품별로 상세한 해설을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발레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빠드카트르

Black&White(현재와 미래)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회향

• 예술감독 및 총안무/박헌주

• 출연/김서연, 정예은, 김은정, 방성현, 박지은 외

클래식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일 시 |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무료(문화가 있는 날)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유니버설발레단 단원을 역임한 정성복이 대표로 있는 'J Ballet Company'가 마련하는 클래식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로 꼽히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3대 발레 중에서도 가장 처음 만들어진 작품으로, 클래식 발레의 장을 연 정통 클래식 발레이다.

마녀의 저주로 깊은 잠에 빠진 공주와 수호신 라일락 요정의 마법, 사랑의 키스 등 고전동화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환상적인 발레로 선보일 이번 무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vent 행사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음악과 책 사이 2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 무료

문의 | 정두환 011-574-0423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진행하고 있는 '좋은음악 & 좋은만남'은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만남의 장이다.

[프로그램]

10월 4일(577회)/변방의 즐거움(최영철, 도요)

10월 11일(578회)/불안 1-원인(알랭 드 보통, 은혜 나무)

10월 18일(579회)/불안 2-해법(알랭 드 보통, 은혜 나무)

10월 25일(580회)/간소한 삶 아름다운 나이듦(스노아야코, 리수)

월드뮤직, 세계음악기행[렉처 콘서트]

일 시 | 9월 6일(화)~12월 6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3:00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입장료 | 20만원(13주, 해설집 제공)
 문 의 | 최정옥 010-3853-6634

...
[프로그램]
 10월 4일 샹송(Chason)-음유시가(吟遊詩歌), 상송을 읊다
 10월 11일 Newage-지친 영혼이여 오라!!
 10월 18일 누에바 칸시온(Nueva Cancion)- 가슴 적시는 남미의 풀뿌리 음악
 10월 25일 멕시코 음악-마리아치의 낭만, 볼레로의 나라
 • 기획 및 해설/최정옥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객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11강 '모차르트의 삶과 음악'

일 시 |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시네아카데미·시네바움 객근수의 클래식투어 제4강 명기, 파가니니 그리고 영화 '레드바이올린'

일 시 |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시네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음료 포함)
 문 의 | 부산시네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010-2774-3455

미술평론가 최석태 '자화상(1)'

일 시 |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네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학생 1만원(음료 포함)
 문 의 | 부산시네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010-2774-3455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제6강 명암법의 대가 카라바조

일 시 |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시네아카데미·시네바움 영화 세상을 바꾸는 힘_아시아 영화 읽기

일 시 |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시네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음료 포함)
 문 의 | 부산시네아카데미 010-3827-2005

부산시민회관 추억의 영상음악회 도병찬의 뮤직파일

일 시 |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시네아카데미·시네바움 예술학 특강(4) 부산에 또 하나의 미술관이 생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일 시 |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시네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음료 포함)
 문 의 | 부산시네아카데미 010-3827-2005

Display 전시

'최영욱'展

일 시 | 9월 1일(목)~10월 14일(금)
 소울아트스페이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BNK아트갤러리 休-시대의 풍경전

일 시 | 9월 7일(수)~11월 25일(금)
 BNK아트갤러리
 문 의 | BNK아트갤러리 246-8975

...
 풍경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대표 미술작가들의 작품 20여 점을 전시하는 BNK아트갤러리 '휴-시대의 풍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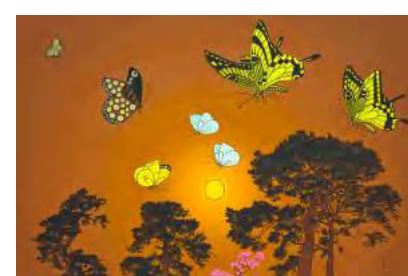
전수훈 개인전

일 시 | 9월 21일(수)~10월 5일(수) 피카소화랑
 문 의 | 피카소화랑 747-0357

이희중展

일 시 | 9월 27일(화)~10월 27일(목)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 조형언어로 풀어내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작가 이희중 작품전. 구상성 짙은 심상풍경과 우주리는 명제로 기하학적인 추상작업을 병행해 온 이희중은 전통질서의 재구성, 소재의 신선한 변형, 나아가 과거와 현대의 조형적 감각을 아우르는 표현력으로 다양한 우주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친근감 있게 펼쳐보이고 있다.



손종민 먹그림展

일 시 | 9월 27일(화)~10월 3일(월)
 해운아트갤러리
 문 의 | 해운아트갤러리 746-3629

리그 오브 레전드:소환展

일 시 | 10월 1일(토)~10월 30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 참여작가/라오미, 이동연, 유갑규, 신미경, 임태규, 신영훈

울속도문화회관 기획전 부·울·경 청년작가전

일 시 | 10월 4일(화)~10월 13일(목)
 울속도문화회관 제1전시실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22

2016 서부 인성문화예술축제 전시회

일 시 | 10월 7일(금)~10월 9일(일)
 울속도문화회관 제2,3전시실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22



❖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다니엘레 가티(지휘)

▶ 빈틈없는 구성과 밀도 있는 사운드로 음악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연주

지휘자 다니엘레 가티는 유럽에서 가장 바쁜 지휘자 중 한 사람이다.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 음악원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코벤티가든 왕립 오페라 하우스,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볼로냐 극장,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를 거쳐 2016-17시즌부터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를 맡게 되었다.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는 암스테르담에 본거지를 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으로, 1988년 네덜란드 여왕으로 부터 왕립 칭호를 하사받았다. 지휘자 다니엘레 가티는 시노폴리를 연상케 하는 완벽주의적인 작품 해석으로 큰 명성을 얻고 있다.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에서도 빈틈없는 구성과 밀도 있는 사운드로 이 곡의 근본적인 음악적인 면을 성공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아나 살렌코(오로라), 마리안 발터(데지레), 사라 메스트로빅(라일락 요정) 외 베를린 슈타츠발레, 베를린 도이체 오퍼 오케스트라, 로버트 라이머(지휘)

▶ 장미 냉골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프로덕션

2015년 9월 베를린 도이체 오퍼에서 프리미어를 가진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영상물로, 작년 홍보용 스틸 컷이 공개되었을 때 무대에 펼쳐진 환상적인 장미 냉골과 우거진 숲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무대에 감탄했던 바로 그 무대이다. 베를린 슈타츠발레의 간판스타인 이아나 살렌코가 주역을 맡아 독보적인 라인의 예술과 극한의 테크닉을 펼쳐 보인다. 여기에 수석 무용수인 마리안 발터의 건장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연기와 무용이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무대에 어울리는 환상적인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베를린 도이체발레의 진일보한 완성도를 HD급의 디테일하고 환상적인 화질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화심의 영상물이다.



❖ 슈베르트의 가곡들 : 방랑자

로더릭 윌리엄스(바리톤), 이에인 번사이드(피아노)

▶ 여인의 사랑에 이은 슈베르트 가곡의 두번째 키워드, 방랑

슈베르트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는 '방랑자'가 아닐까 싶다. 소프라노 일리시 티넨과 함께 사랑에 빠진 여인을 주제로 슈베르트의 가곡의 새로운 매력을 이끌어낸 전작에 이어 피아니스트 이에인 번사이드는 2016년 로열 필하모닉 소사이어티 상의 주인공, 바리톤 로더릭 윌리엄스와 함께 슈베르트 가곡의 방랑을 노래했다. 지나치게 걱정적이지도 무미건조하지도 않은 해석, 전작을 능가하는 연주자들의 호흡은 작품의 다양한 색채를 음미할 수 있는 여운을 선사한다. '음유시인'의 감흥을 느낄 수 있는, 1집에 이어 놓칠 수 없는 음반이다.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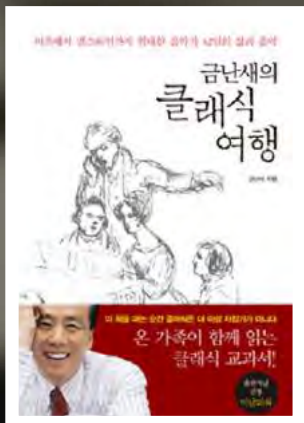
시각디자인



리카르도 팔치벨리 지음, 윤병연 옮김 / 홍디자인 / 416p / 1만 5천원

로마의 고등산업예술학교(SIA) 디자인학과에서 인지심리학을 가르치는 리카르도 팔치벨리 교수가 디자인의 역사를 500년으로 확장하여 펼쳐 보이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우리의 시선에 포착되기 위해 만들어진 디자인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다. 책에는 디자인의 기원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1524년 어느 날, 위대한 판화가로 칭송받던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가 교황 클레멘테 7세의 근위병들에게 체포됐다. 소름끼치고 불순하기 짝이 없는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왕족이나 귀족 등 소수의 특권층은 사티로스나 요정같이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으로 궁정의 내부를 장식했다. 사실 포르노나 다름없는 그림들이었으나, 이런 그림을 화가에게 청탁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 풍조였다.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의 범죄사실은 그런 이미지의 복사본을 대량으로 만들어 배포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디자인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이 문제였다. 디자인의 힘을 예견했던 역사적 사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디자인 스튜디오의 대표이기도 한 저자가 현대에 남아있는 수많은 상징들에 담긴 디자인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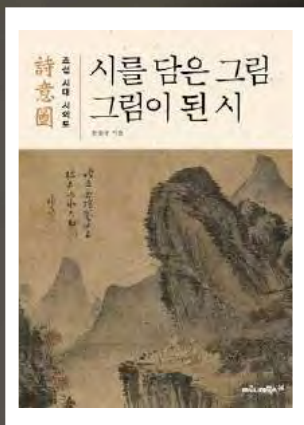
금난새의 오페라 여행



금난새 지음 / 아트북스 / 376p / 2만 5천원

오페라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대본의 줄거리와 작품의 탄생 배경을 알아야 한다. 오페라 전곡을 온전히 감상하기 위해서는 관객의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중에게 전곡 감상을 요구하기란 어렵다. 대중들이 클래식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던 지휘자 금난새는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애써왔다. 오페라의 주요 곡들을 발췌한 '갈라 콘서트'를 여는 등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청중과 만나온 것이다. 금난새는 그런 기획공연들을 통해 대중이 오페라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는 음악인이다. 그것이 그를 오페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금난새는 오페라를 감상할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 책을 썼다. 개별 작품들의 줄거리를 각 막 별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유명한 아리아의 경우 가사를 함께 실었다. 작곡가의 삶, 음악, 작품의 탄생 배경과 재미있는 일화 등을 차근차근 짚어낸 다음 상세한 줄거리와 함께 장면을 상상하면서 음악을 들도록 유도했다. 각 오페라 작품의 호평 받은 공연 DVD 소개와 오페라의 역사, 오페라를 이루는 음악적 요소와 용어들도 설명해준다.

시를 담은 그림 그림이 된 시



윤철규 지음 / 마로니에북스 / 464p / 2만 8천원

시중유화 화중유시(詩中有畫 畫中有詩).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는 의미이다. 옛 그림에 글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언제,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등의 정보와 동양 고전의 진수인 시구나 명구가 담겨 있는 것이다. 동양화에서 이렇게 그림과 글이 함께하는 그림을 '시의도(詩意圖)'라 한다. 중국 남송시대에 시작된 형식으로,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전해졌다. 시의도를 그린 선비 화가들은 머릿속에 글귀를 먼저 떠올린 뒤 붓을 들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 그림이라는 뜻이다. 시·서·화(詩·書·畫)를 통해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고 학문을 닦았던 문인 사대부들이 주로 그렸던 시의도에는 그들의 학식과 교양이 그림에 담길 수밖에 없었다. 서울옥션 대표를 지내면서 오랜 시간 미술 현장에서 대중과 소통해온 저자 윤철규가 시의도를 설명하는 책을 펴냈다. 수년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망라해 책으로 엮어냄으로써 조선 후기, 18세기를 전후해 짧은 기간 유행한 시의도의 특징과 우리 회화사에서 시의도가 갖는 의미를 밝혔다. 한문학자인 김규선 교수가 시의도 속 한시를 철저히 감수해 그림과 시의 감상을 돕는다.



NEWS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가을 프로그램 풍성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Ⅱ, 문화대학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Ⅳ'-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오페라 교육 프로그램 2개가 10월 새롭게 개강된다.

명작 오페라 해설과 성악가의 공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는 베르디와 푸치니 스페셜을 기획,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3주간 'Enjoy 베르디 & 푸치니'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베르디 '나부코'와 '일 트로바토레', '운명의 힘', 푸치니 '나비부인', '토스카', '잔니스키키' 등 6개 작품으로, 상반기 쉽고 재미있는 오페라 현장이야기와 작품해설로 인기를 모았던 연출가 이의주가 해설자로 다시 부산 음악애호가들을 만난다.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문화대학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Ⅳ'가 진행된다. 올해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희태 지휘자를 비롯해 바리톤 박대용, 서울대학교 오희숙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6인이 다양한 주제로 가을 오페라 이야기를 펼친다.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Ⅱ, 문화대학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Ⅳ'는 10월 3일부터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4, 3155)

부산시립합창단 신임 부지휘자에 지휘자 전진 선임



독일 할레오페라극장 어시스턴트 지휘자로 활동한 바 있는 지휘자 전진이 부산시립합창단 신임 부지휘자로 선임됐다.

조선대학교에서 음악교육, 작곡을, 충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지휘를 전공한 전진은 독일 Evangelische Hochschule für KirchenMusik에서 합창 및 오케스트라 지휘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루마니아 콘스탄타 오페라지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전진은 그동안 충신대 남성합창단 전국순회 및 정기 연주회(2004년~2005년), 독일 할레합창단 'VochALes' 순회연주 및 정기연주회(2011년~2012년)에서 지휘를 맡는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그동안 헨델의 고향 할레를 중심으로 연주활동을 펼쳐온 전진 부지휘자는 앞으로 전상철 수석지휘자와 함께 부산시립합창단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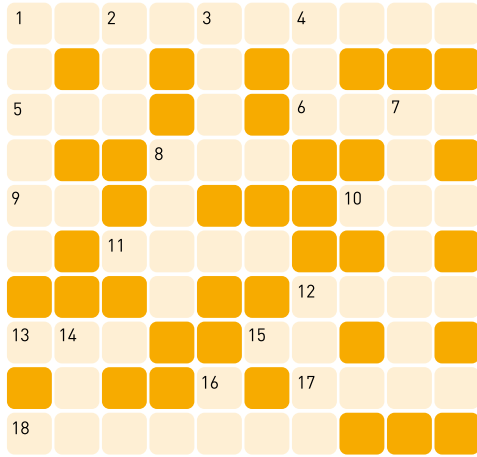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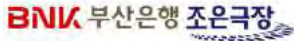
- 10월 1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인들이 아시아 문화와 한류(韓流)로 하나 되는 염원을 담은 다장르 융복합 개념의 새로운 한류축제.
- 경주시 동쪽 토함산에 있는 사찰. 경내에는 통일신라시대 만들어진 진보탑(국보 20호), 삼층석탑(국보 21호), 연화교칠보교(국보 22호), 청운교백운교(국보 23호),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26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27호) 등 다량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5년 12월 석굴암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더불어 '르네상스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화가. 플라톤, 유클리드,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그리스의 학자가 학당에 모인 것을 상상해서 그린 '아테네 학당'으로 유명하다.
- 이탈리아어로 '부드럽고-강하게(soft-loud)'라는 의미인 'Pianoforte'의 줄임말로, 3개의 페달과 88개의 건반으로 구성된 타현악기.
- 발과 머리 등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를 사용해 공을 다루는 구기종목으로, 출전 선수 11명씩 각각 한 팀을 이루어 두 팀이 겨루며, 세계적으로 최고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이다.
- 미국의 영화단체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주최로 매년 봄에 열리는 미국 최대 영화상인 아카데미 시상식의 트로피를 부르는 별칭.
-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풍자 소설. 근대소설의 선구가 되었으며 스페인의 사실적 문체의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 지난 1999년 국내 개봉 일본 영화 최초로 140만 관객을 동원했던 이wai 순지 감독의 감성 멜로영화.
- 우리나라에서 창시되어 세계화된 국제공인 스포츠. 손과 발을 주로 사용하는 전신운동으로, 신체를 강건하게 하고 심신수련을 통해 인격을 도야하며, 기술단련으로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는 호신술이다.
- 시인 윤동주의 대표 시(詩).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 아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
- 이탈리아 배우 겸 감독 로베르토 베니니가 주연과 연출을 겸한 영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를 배경으로 참혹한 홀로코스트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낸 아버지 귀도의 이야기를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세로열쇠

- 매년 10월, 공인리 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일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의 불꽃 축제로, 올해는 10월 22일 펼쳐진다.
-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자리에 있었던 한국 최초의 서양식 사설극장. 한국 신극운동의 요람으로 1908년 창설되었으며, 그해 11월 이인직(李人植)의 신소설 '은세계(銀世界)'를 처음 상연했다.
- 라시아 우랄산맥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북아시아 지역으로, 아시아 대륙의 1/4이 넘는다.
- 요르단 남부에 있는 도시유적.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더불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인디애나 존스-마지막 성배(1989)'의 촬영 장소로 유명하다.
- 미국의 가수 겸 배우. 로큰롤의 탄생과 발전, 대중화에 앞장섰고 팝, 컨트리, 가스펠 음악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대표곡으로 '하트브레이크 호텔(1956)', '하운드 독(1956)', '러브 미 텐드(1956)', '버닝 러브(1972)' 등이 있다.
- 이탈리아의 작가 C. 콜로디의 동화 또는 그 주인공 이름. 동화 속에서 거짓말을 하면 지푸 커지는 ○○○○의 코는 이 작품을 읽지 않은 어린이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 도시의 일일 교통 흐름에 있어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피크 아워(peak hour)라고도 한다.
- 단편동화 '강아지똥', 소년소설 '몽실언니'로 유명한 동화작가. 평생 가난과 병고로 힘들게 살았으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뒤에도 검소하게 생활하다가 2007년 5월 17일 세상을 떠난 후 2009년 3월 그의 유산과 인세를 기금으로 남북한과 분쟁지역 어린이 등을 돕기 위한 ○○○어린이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 음력으로 그 달의 열닷새째 되는 날.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엘로인 플라워 | 080-337-3370



엘로인 플라워

지난호 정답

다 니 엘 호 프 이 중 섭
 라 니 로 시 니 오
 니 뇨 메 설 록 흠 즈
 경 주 아 테 네 의
 삼 우 새 웅 지 마
 라 스 베 가 스 헤 법
 보 거 십 이 야 사
 엠 독 도 장 서
 괴 미 생 태
 물 량 루 즈 호 접 지 몽

엘로인플라워 강영화(동래구 안연로)
 이은준(영도구 남항남로)

공간소극장 김미라(부산진구 거제대로)
 박소연(해운대구 해운대로)
 박용진(동래구 시실로)
 이원희(부산진구 엄광로)
 윤광수(남구 동명로)

조은극장 김광열(부산진구 양지로)
 김정임(남구 오륙도로)
 양지운(부산진구 가야대로)
 이경미(사하구 다대로)
 정진주(수영구 광일로)

큰집식사원 김현숙(부산진구 동평로)
 박주영(부산진구 서전로)
 이규생(북구 신도시로)
 정명희(부산진구 성지로)
 홍정혜(금정구 금샘로)

9월호 퍼즐 당첨자



내가 사랑하는 OPERA II

Enjoy 베르디 & 푸치니

고품격 강좌와 성악가의 아리아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와 함께 하는
행복한 오페라 산책

2016. **10. 17**(월) ~ **11. 1**(화)

매주 **월, 화요일**(총 6회)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해설 **이의주** 오페라 연출가

베르디 Day _ 월요일 10. 17 나부코(1842)
 10. 24 일트로바토레(1853)
 10. 31 운명의 힘(1862/1869)

푸치니 Day _ 화요일 10. 18 나비부인(1904)
 10. 25 토스카(1910)
 11. 1 잔니스키키(1918)

접수기간 2016. 10. 1(토)~10. 16(일)

모집인원 50명

수강료 6만원 | 베르디+푸치니(총 6회)+오페라인 콘서트(11/4) R석 관람권
4만원(택입) | 베르디(월, 3회)+오페라인 콘서트(11/4) R석 관람권
푸치니(화, 3회)+오페라인 콘서트(11/4) R석 관람권

신청방법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4, 3155**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접수 culture.busan.go.kr

해설 이의주(오페라 연출가)
 반주 이은정(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단원)
 연주 소프라노 엄남이(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 단원), 김시하
 소프라노 김정현, 정수정, 바리톤 윤오건



2016 문화대학 무대예술의 결정체 Opera 오페라 IV

2016. 10.26(수)~11.30(수) 14:00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서희태, 박대용, 오희숙, 정희정, 홍지혜, 김성경이
들려주는 가을 오페라의 향연

| 수강생 모집 |

- **접수기간** : 10월 3일(월)~10월 21일(금) ● **수강료** :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수강료 납부** : 카드 또는 계좌 이체(부산은행 101-2035-6492-01 예금주 문화회관 아카데미)
- **홈페이지**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 → 커뮤니티 → 아카데미
- **모집인원** : 60명(수강료 납부순으로 마감)
- **접 수** : 홈페이지 및 전화
- **문의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4, 3155

| 강사 및 일정 |



1주 10월 26일(수)

서희태
필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성악지휘자
서희태의 오페라 하우스



2주 11월 2일(수)

박대용
동아대학교 교수, 비리톤
오페라 사랑의 이증강!



3주 11월 9일(수)

오희숙
서울대학교 교수
오페라 속의 미학
- 21세기 현대 오페라를 중심으로 -



4주 11월 16일(수)

정희정
KNN 아나운서
소리로 즐기는 오페라



5주 11월 23일(수)

홍지혜
오페라코치, 고신대학교 초빙교수
오페라에 나타난
다양한 직업들



6주 11월 30일(수)

김성경
연출가, 오페라제작소 빙베니 대표
김성경과 떠나는 오페라여행
오페라 체험
'나도 오페라 스타'

2017년도 상반기 부산문화회관 정기대관 안내

문의

- 관리팀
☎ 607-6051~5, F. 607-6019
- 대극장 : 김성미
☎ 607-6052, hellowsky@korea.kr
- 소극장 : 소현우
☎ 607-6051, awesome12@korea.kr
- 대전시실 : 윤한욱
☎ 607-6054, yoon21000@korea.kr

· 대상

· 극장(대극장, 소극장), 전시실(대전시실)

·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17. 1. 1(일) ~ 6. 30(금)
※ 중극장, 중전시실 2017년도 상반기 리모델링 예정
- 대관가능일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공지사항 참조
- 접수기간 : 2016. 10. 4(화) ~ 10. 17(월)
- 접수방법 : 온라인대관, 메일, 팩스, 우편
- 결과통보 : 접수기간 마지막 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허가 여부 회신

· 기본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특정단체의 집회성(정치, 종교 등) 공연 및 행사는 대관 제외

·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 상담(구두, 전화) ▶ 신청 및 접수(적정여부) ▶ 대관심의(일정조정) ▶ 통보

·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으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납부

- 계약금 : 사용 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잔 금 : 공연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

The Night of Asian Ethnic Music



지휘_이정필

고블_주건

고블_정갈

가보

성악_차미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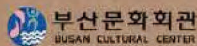
탈춤_김효율

악사_홍갑영

구미교_박성진

2016. 10. 18. [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동주최



K 국제신문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A석 10,000원 B석 5,000원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장소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고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시간 · 월 ~ 금 19:00 (※ 공연있는 날에 한함)

BOF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클래식 饗宴”



지휘 스킷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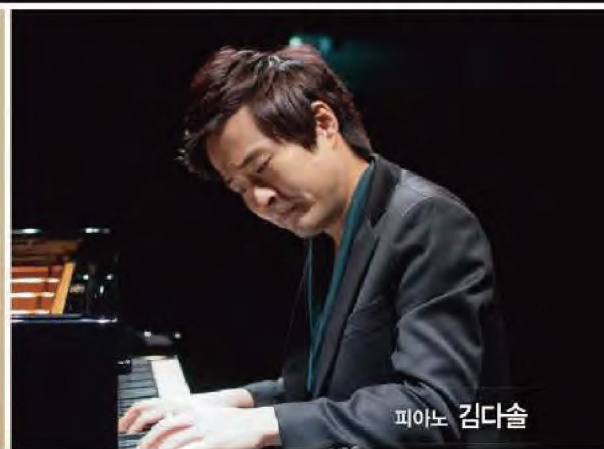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후미아키 미우라



첼로 비온 창



피아노 김다솔

Program

아리랑
라벨 | 치간느
리스트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베토벤 | 로망스
차이코프스키 |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라벨 | 볼레로

Program

드뷔시 | 시링크스
모차르트 | 플루트 사중주 D장조
하이든 | 피아노 삼중주 제39번 “집시”
코다이 |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브람스 | 피아노 사중주 No.1

바이올린 스킷 유, 후미아키 미우라 비올라 김가영
첼로 비온 창 플루트 엘리스 데이드 피아노 김다솔

2016. 10. 12(수) PM 7:30 대극장

티켓 R석 2만원 / S석 1만원

2016. 10. 14(금) PM 7:30 중극장

티켓 전석 1만원

한중수교 24주년 기념공연

중국 대표 10대 우수 공연 선정작 월상하란

중국문화와 이슬람문화의 접점지인 닝샤 회족자치구를 대표하는 최초 대형 창작 무용극 회족^{回族} 최초로 중국공연예술계 최고권위상 문화상^{文华奖} 특별상^{特别奖}과 무용분야 최고상인 허화상^{荷花奖}을 수상한 총 600회 이상 공연된 월상하란

월상하란

달빛이 물든
하란산에서의 영원한 서약

The Moon over
the Helan Mountain

月上賀貝羅



출연작

중국닝샤은천예술극단 中国宁夏银川艺术团

2016. 10. 15(토) ~ 16(일) PM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NINA 선박제원

전장	폭	톤수	속력	승객 정원
39.95m	10.70m	364ton	34kn	440명

NINA 2016년 신조 선박 도입!!

- 부산 ↔ 일본 운항 선사 중 “최초로 신조, 최신식 선박 도입”
 - 네덜란드 DAMEN사에서 국내 외항선 최초 “HSC2000 CODE”로 적용하여 제작
 - 쌍동선으로 복원력이 뛰어나며 높은 안정성
- VIP용 최신식 좌석, 최고급의 가죽시트 좌석, 밝고 화사한 인테리어
 - 1층 일반석 285석, 2층 비즈니스석 155석 (다수의 자전거/낙시 승객 탑승 가능)
 - 전좌석 안전벨트 및 개인 트레이 비치
- 고객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
 - 밝고 넓은 화장실 (1층 5개 (장애인/유아용 1칸), 2층 2개)
 - 선내 CAFE (대형 커피머신 세팅, 365일 향기로운 CAFE 운영)
 - 선내 면세점 (다양한 상품이 구비된 선내 DUTY FREE샵)
 - 넓은 수하물 보관장소 (자전거·낙시용품 보관을 위한 별도 CAGO ROOM)



운항항로

- 부산 ↔ 대마도 항로(TSUSHIMA 対馬)



개인예약 문의 • 1599-0255
 단체예약 문의 • 051-410-8802
 영 업 문 의 • 051-410-8803
 홈페이지(한국) • <http://www.kobee.co.kr>
 홈페이지(일본) • <http://www.kobee.jp>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사랑의 묘약

Gaetano Donizetti

L'ELISIR D'AMOR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6. 11. 4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호세 미구엘 에산디

José Miguel Esandi

Adina 임 선 혜

Nemorino 김 건 우

Dulcamara 사무엘 윤

Belcore 박 대 용

Giannetta 김 시 하

부산시립합창단

주 최 부산광역시

문의 607-3106 (홍보팀), 3145 (공연운영팀), 3151 (정기회원)

입장권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할인 (전화예약시)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지녀가정

20% ▶ 정기회원 (인터넷 예매 가능) / 예술인패스 소지자 / 외국인 /

대학생 및 만24세이하 / 단체 (10명 이상)

※ 학생단체 (50% 및 3,000원권) ▶ 전화문의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화승에 다닙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가구공방을 다니며
가구를 만드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곳.
요리도, 커피도, '꿈틀 프로젝트'를 통해
나를 나눔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곳.
텃밭을 일구어 수확한 푸른 채소를 나눠 먹고,
그 채소를 회사 식당에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화승이랑'으로 나눔과 도움의 보람을 주는 곳.
장애 비장애 형제들과 함께 놀며 그 안에서
더 큰 나를 발견하게 하는 곳.
교육도, 문화도 함께라는 가치를
더 크고, 더 멀리 나누는 곳.
희망 가득한 이곳에
내 꿈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화승에 다닙니다.



화승그룹

(국내) 화승R&A 화승소재 화승T&C 화승공조 화승인더스트리 화승엑스월 화승네트웍스

(해외) 중국 - 화승기차배건(태창)유한공사(HST), 북경화승R&A기차배건유한공사(HSB), 화승특종고무(태창)유한공사(HSR),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HSD), 청도장천제화유한공사(HSQ), 화승태양에너지(태창)유한공사(HSP), 화승상해국제무역유한공사(HSS), 화승호천(태창)국제무역유한공사(HSTN), 미국 - 화승아메리카홀딩스(HSAH), 화승앨라배마(HSAA), 화승USA(HSAU), 화승네트웍스아메리카(HSNA) 멕시코 - 화승멕시코(HSAM), 인도 - 화승인도(HSI AUTO), 화승인도네트웍스(HSNI), 화승소재인도(HSM) 터키 - 화승터키(HSTR), 베트남 - 화승비나(HS VINA), 화승붕따우(HVT), 화승베트남케미컬(HVC), 장천비나(CCVN), 화승베트남네트웍스(HSVN)